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노인의 일상 여가장소  
이용행태와 선택요인  
－ 서울의 종묘공원을 중심으로 －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정 유 선



## 국 문 초 록

한국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향후 도시 분야에서도 노인복지와 노인여가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 중 본 논문은 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원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다음으로 노인들의 주요 외출 장소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로공원, 실버공원이라고 불리는 공원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 노인 복지 및 여가시설의 공간적 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근린시설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먼 지역에서부터 도심의 공원에 모여 여가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사례는 노인여가시설 계획에 있어서 근접성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규모’의 선호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의 종로공원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고, 어떤 요소들이 노인들을 공원에 더 자주 찾아오게 하고,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종로공원의 이용에 대한 현장관찰과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요인, 이동요인, 규모요인, 근린요인으로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과 이에 대한 인식, 이동에 대한 제한과 근린시설에 대한 만족도, 경제사회적 특성 등을 나누어서 보고자 하였다. 방문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각각 교차분석으로 분석해 보고, 요인분석, 순서형 로짓분석을 통해 각각을 통제했을 때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변수에 따른 체류시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데에는 t검정,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로에 노인들이 많이 오는 것은 현재 있는 근린시설이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들은 실내의 복지시설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활기찬 실외 장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근린에 기초적인 복지시설 뿐 아니라 노인들의 선호를 반영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들은 가깝더라도 사람이 적은 곳보다는 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호하였다.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써 생겨나는 규모와 다

양성은 방문빈도 뿐 아니라 체류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노인들은 도심이라는 주변 환경보다 공원 내부의 특성에 의해 공원에 더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이다.

셋째, 종묘공원에 자주 다니는 노인들은 원거리를 이동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의 증진, 시간에 대한 낮은 기회비용, 대중교통수단의 개선과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무료교통은 그들의 이동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 앞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여가를 위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노인층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독거노인들이 다른 집단보다 종로를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같이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노인의 여가형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가 장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근린의 시설이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여럿이 모여서 다양하게 소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노인들의 여가만족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들은 종묘공원에서 동류 집단의 소속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고, 특별히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었음에도 다양한 여가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묘공원의 이용이 과거에만 있던 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공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외부공간에서 여럿이 모여 여가를 보내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들의 여가와 여가장소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활력적인 요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주요어** : 노인 여가, 종묘공원, 규모, 다양성, 이동, 근린

■ **학 번** : 2011-23936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 3 절 연구 흐름도 ..... 5

##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6

### 제 1 절 노인의 여가형태 특성 ..... 6

#### 1. 노인의 정의와 특성 ..... 6

#### 2. 노인의 여가형태 ..... 7

#### 3. 노인의 여가통행 ..... 9

### 제 2 절 노인 여가와 공원 ..... 12

#### 1. 노인의 여가장소 선택 ..... 12

#### 2. 노인의 공원 이용 ..... 14

#### 3. 노인과 종묘공원 ..... 16

### 제 3 절 소 결 ..... 20

## 제 3 장 노인의 종묘공원 이용행태 특성 ..... 22

### 제 1 절 분석틀 ..... 22

1. 현장 관찰 ..... 22
2. 설문조사 설계 ..... 22

### 제 2 절 종묘공원 이용행태 ..... 26

1. 공원 내부의 이용행태 ..... 26
2. 주변 지역의 이용행태 ..... 34

### 제 3 절 종묘공원 이용자 특성 ..... 37

1. 설문조사 개요 ..... 37
2. 요인별 특성 ..... 41
  - 1) 이용 특성 ..... 41
  - 2) 개인요인 ..... 42
  - 3) 규모요인 ..... 44
  - 4) 이동요인 ..... 46
  - 5) 근린요인 ..... 48

## 제 4 장 방문빈도와 체류시간 결정요인 ..... 50

### 제 1 절 방문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0

1. 변수 및 분석모형 설정 ..... 50
  - 1) 교차분석 ..... 50
  - 2) 요인분석 ..... 50
  - 3) 최종 분석 모형 ..... 51
2. 방문빈도 결정요인 분석 ..... 54
  - 1) 변수별 방문빈도 차이 ..... 54
  - 2) 규모인식과 이동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 55
  - 3) 순서형 로짓분석 ..... 58
  - 4) 결정요인 ..... 61

제 2 절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3
1.	변수 및 분석모형 설정	63
2.	요인별 체류시간 차이	65
1)	개인요인	65
2)	규모요인	66
3)	이동요인	67
제 5 장	결론	68
제 1 절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68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1
참 고 문 헌		72
〈부록 1〉	설문조사지	77
〈부록 2〉	기초통계 표	79
Abstract		81



# 표 목 차

[표 2-1]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생활시간 .....	8
[표 2-2] 외출 시 노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	9
[표 2-3] 서울·과천 응답자의 교통수단 분포 .....	10
[표 2-4] 서울지역 고령자의 주요 외출장소와 1주당 빈도 .....	14
[표 3-1] 변수 설정 .....	24
[표 3-2] 변수별 코딩내용 .....	25
[표 3-3] 조사 날짜와 부수 .....	37
[표 4-1] 방문빈도 결정요인 분석 과정 .....	53
[표 4-2] 교차분석 결과요약 1 .....	54
[표 4-3] 교차분석 결과요약 2 .....	55
[표 4-4] 규모과 이동에 대한 인식 .....	56
[표 4-5] 상관분석 결과와 역이미지 상관계수 .....	56
[표 4-6] 공통성의 추출 .....	57
[표 4-7] 설명된 총분산 .....	57
[표 4-8] 요인분석 결과 및 명명 .....	58
[표 4-9] 성분변환행렬 .....	58
[표 4-10] 변수 간 상관관계 .....	59
[표 4-11] 예측범주와 실제범주간의 교차표 .....	60
[표 4-12] 순서형 로짓분석 변수 구성 및 분석 결과 .....	61
[표 4-13] 종속변수와의 관계 .....	62
[표 4-14] 체류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 .....	64
[표 4-15] 개인요인이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 .....	65
[표 4-16] 규모요인이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 .....	66
[표 4-17] 이동요인이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 .....	67

##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 대상지인 종묘공원과 주변 분포 .....	3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	5
[그림 2-1] 고령자의 도착통행량 분포 .....	11
[그림 2-2] 지하철역별 노인하차수 .....	11
[그림 2-3] 탑골공원의 이용행태도 .....	17
[그림 2-4] 종묘공원 이용 행태도 .....	18
[그림 3-1] 분석 모형 .....	23
[그림 3-2] 종묘공원 동절기 이용 행태 .....	26
[그림 3-3] 종묘공원 하절기 이용 행태 .....	26
[그림 3-4] 동절기의 이용모습-이상재 동상 부근 .....	27
[그림 3-5] 하절기의 이용모습-이상재 동상 부근 .....	27
[그림 3-6] 동절기의 지하철역 이용 .....	28
[그림 3-7] 하절기의 지하철역 이용 .....	28
[그림 3-8] 동절기의 바둑 .....	29
[그림 3-9] 하절기의 바둑 .....	29
[그림 3-10] 동절기의 서예관 .....	29
[그림 3-11] 하절기의 서예관 .....	29
[그림 3-12] 하절기의 정치집회 모습(자유시민총연합) .....	30
[그림 3-13] 하절기의 정치집회모습(대한민국어버이 연합) .....	30
[그림 3-14] 종묘공원 근처의 선물집 .....	30
[그림 3-15] 매점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	31
[그림 3-16]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이야기하는 자리 .....	31
[그림 3-17] 종묘공원 재정비사업 안내 플래카드 .....	33
[그림 3-18] 종묘공원 주변의 주요 토지이용 .....	34
[그림 3-19] 종묘공원 인근의 주요 노인이용시설 분포 .....	35

[그림 3-20] 탑골공원 근처의 저렴한 음식점들과 무료급식소 .....	35
[그림 3-21] 탑골공원 근처의 이발소들 .....	36
[그림 3-22] 거리 좌판 .....	36
[그림 3-23]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을 오가는 노인들 .....	36
[그림 3-24] 광역자치단체별 이용자 .....	38
[그림 3-25] 권역별 이용자 분포 .....	38
[그림 3-26] 공원 이용자의 분포 .....	39
[그림 3-27] 공원 이용자의 분포와 지하철노선 .....	40
[그림 3-28] 공원 방문 빈도 .....	41
[그림 3-29] 공원체류시간 .....	41
[그림 3-30] 나이 .....	42
[그림 3-31] 학력 .....	43
[그림 3-32] 은퇴 전 직업 .....	43
[그림 3-33] 용돈 .....	44
[그림 3-34] 동거형태 .....	44
[그림 3-35] 규모요인 .....	45
[그림 3-36] 공원에 왔을 때 주로 하는 활동 .....	45
[그림 3-37] 이동시간 .....	46
[그림 3-38] 거리 인식 .....	46
[그림 3-39] 이동에 대한 부담 .....	47
[그림 3-40] 교통비용 .....	48
[그림 3-41] 이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	48
[그림 3-42] 근린요인 .....	48
[그림 3-43] 자주 다니는 곳 .....	49
[그림 3-44] 거주기간 .....	4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고령화는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73만명(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545만명(11.3%)으로 5년 전보다 24.4% 급증하였다. 나아가 2030년 1,269만명(24.3%), 2060년 1,762만명(40.1%)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0년 전국 모든 시·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전체 지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이처럼 노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복지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여가는 단순히 의료나 주거 등 기초적인 분야 뿐 아니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가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어떠한 역할 사이에 주어지는 여유시간으로 인식되는 반면, 노인에게는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역할이 없이 막연하게 보내는 긴 시간이며 노인의 매일 매일의 생활을 구성한다. 따라서 노년기에서의 여가활동은 다른 어떤 계층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김보현 외, 2008).

한국의 노인여가 형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TV와 같은 대중매체 시청이지만, 점차 가정 밖에서 여가를 보내려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박종천, 2010).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성이 높은 노인들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추세에 한 원인이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지난 10년간 크게 향상되어 노인들은 이제는 70대가 되어서야 스스로 노인임을 받아들이며, 건강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8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저하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정경희 외, 2012).

이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향후 도시 분야에서도 노인복지와 노인여가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해질 것이다. 특히 공원은 노인을 위해 계획된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다음으로 노인들의 주요 외출 장소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다(조남건, 2001). 이처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로공원, 실버공원이라고 불리는 공원이 많아지고 있다(양재준, 2007).

현재 노인 복지 및 여가시설의 공간적 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근린 시설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노인통행패턴 분석 결과를 보면,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는 거주지 근처보다는 도심 근처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서울연구원, 2012; 이도희 외. 2008)

한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한 지역에 오래 살더라도 가까운 이웃보다는 과거 사회생활을 했던 친구관계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더 가깝게 느끼는 등 지역사회가 가지는 의미는 더 적게 나타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먼 지역에서부터 도시의 공원에 모여 여가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사례는 노인여가시설 선택에 있어서 시설의 근접성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규모’에 대한 선호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종묘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용특성을 관찰하고 공원 방문과 체류시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 여가장소의 공간적 설계와 배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연구 대상지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의 종묘공원이다. 많은 언론이나 논문이 지목하고, 또 이용하는 노인들 대다수가 증언하듯이, 종묘공원은 서울시내 공원 중에서도 노인의 이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과거 탑골공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던 노인들은 2001년 탑골공원의 성역화 사업 이후, 종묘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과거 탑골공원을 이용하던 노인들과 지금 종묘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종묘공원도 성역화사업 등으로 활동의 제재를 많이 받았으나 아직까지도 노인들의 발걸음이 가장 많은 공원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대상은 대상지의 공원을 이용하는 남성 노인이다. 노인의 기준은 대체로 6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의 노화와 사회경제적 은퇴, 가구원수 변화 등 생애주기 상 노년기를 보내고 있고, 많아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였다. 성별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은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원거리 여가장소 선호의 주 대상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 연구 대상지인 종묘공원과 주변 분포

## 2. 연구의 방법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목적,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명시하여 연구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차원에서 노인의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고, 선행 연구로 노인의 여가와 여가장소, 노인 여가와 종묘공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노인들의 종묘공원의 이용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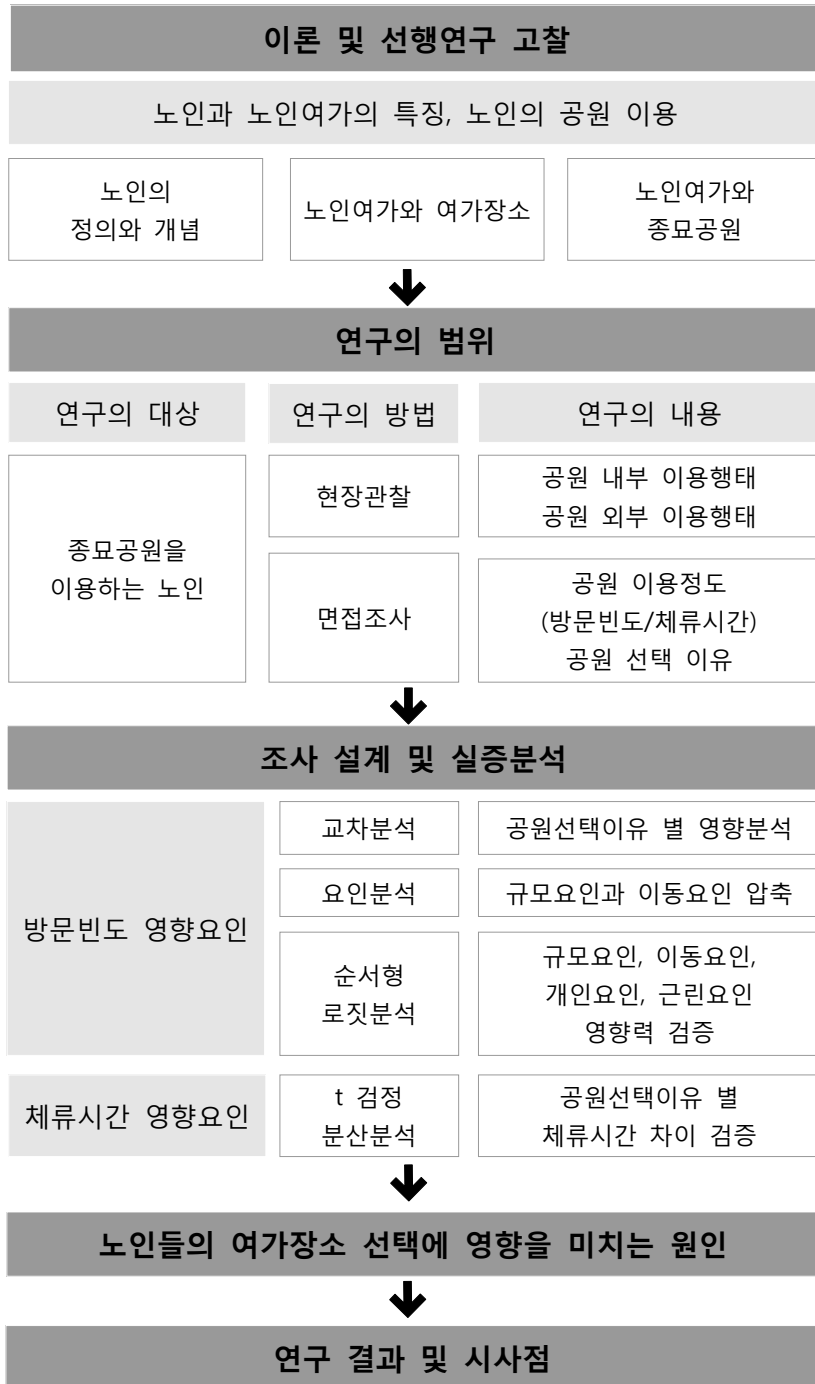
제3장에서는 분석의 개요를 정립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고, 변수를 설정한 뒤 설문을 설계하였다. 현장관찰과 면접조사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4장에서는 수행된 현장관찰과 면접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노인들이 공원과 공원 주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기초통계 분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GIS 프로그램인 ArcMap 10.1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공원의 방문빈도와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방문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에는 교차분석과 요인분석,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변수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 검정과 일원 분산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자료의 분석에는 SPSS 19.0을 이용하였다.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구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밝혔다.

### 제 3 절 연구 흐름도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제 1 절 노인의 여가형태 특성

#### 1. 노인의 정의와 특성

노인은 고령화 과정에서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차원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생리적 차원에서의 쇠퇴, 정신기능과 성격의 변화,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의 변화 등이다(홍숙자, 2010;31). 이처럼 노년기는 대체로 퇴행의 시기로 인식되었으며, 비생산적이고 소외된 시기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노년기는 이제 전체 인생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으로 노년기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권태연, 2009).

연령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60세를 전후하여 노인을 규정해 왔는데, 이는 전통적인 환갑연령이나 정년퇴직의 시기, 그리고 조부모가 되는 시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부에서는 준고령자를 55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60세부터이고, 사회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뉴가르텐(Neugartont, 1974), 브로디(Brody, 1977), 국제연합(United Nations, 2010) 등 학계에서는 노인을 연령별로 더욱 세분화해서 인식하고 있다. 몇 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따르지만 65세, 75세, 85세가 대체로 주요한 구분연령이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사회보장체계가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노인의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노인세대는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신규 젊은 노인층에 의해,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의해, 그리고 복지정책의 변화에 의해 건강, 경제 그리고 사회활동 및 가치관 등의 삶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현 노인세대는 ‘노인’이라는 동일 연령군에 속해 있지만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이윤경 외, 2010).

이윤경 외(2010)의 연구에서 1994~2008년간 노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동거형태, 건강상태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노인의 교육수준

은 크게 향상되고, 자녀동거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향상되어 노인의 독립성도 증가하였다. 노인들은 더 이상 65세를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70대에 진입하여야만 노인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건강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8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저하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정경희 외, 2012).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고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높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웃 등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크게 나타났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한 지역에 오래 살더라도 가까운 이웃보다는 과거 사회생활을 했던 친구관계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더 가깝게 느끼는 등 지역사회가 가지는 의미는 더 적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을 종합해 보면, 노인세대는 연령집단, 교육수준, 경제수준 그리고 건강상태, 지역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이다(이윤경 외, 2010). 따라서 노인복지정책도 이러한 노인의 다양성에 따라서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

## 2. 노인의 여가형태

노년기에 접어들면 대다수 퇴직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서 물러나게 되고, 대부분은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역할이 없이 막연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강제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벗어나 과거의 노인들이 향유하였던 가장 또는 웃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채 이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부재한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익기 외, 1999). 결국 노인들이 가정 또는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발견하여 매일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노인에게 얼마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느냐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김보현 외, 2008).

통계청에서 2009년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포함된 개인유지 시간을 제외하면, 교제 및 여가

활동에 보내는 평균 시간이 가장 길었다. 또한 남자는 7시간 24분, 여자는 6시간 20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여가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생활시간

구분	남자	여자
개인유지	11시간 34분	11시간 34분
일	2시간 14분	1시간 14분
<b>교제 및 여가활동</b>	<b>7시간 24분</b>	<b>6시간 20분</b>
참여 및 봉사활동	2분	4분
이동	1시간 23분	1시간 3분
가정관리	52분	2시간 58분
가족 보살피기	9분	15분
기타	52분	2시간 57분

자료: 통계청(2009)에서 재정리

김익기 외(1999)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여가형태를 보면 대체로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집안일, 손자녀 돌보기 등 가정 내에서 혼자 소일하거나 친척·친구 방문 등 단순 모임이나, 화투, 장기, 바둑 등 소극적으로 여가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 밖보다는 가정 내에서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대체로 많은데, 이러한 가족 중심 여가를 하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가정 내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주택구조나 가족구성형태, 사회구조에 의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박종천, 2010).

가정 밖의 여가형태는 동년배들과 노인정이나 공원에서 세상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바둑·장기를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형태, 노인학교나 사회교육기관에 다니며 교양강좌를 듣거나 노래나 춤을 추며 건강관리를 하는 형태, 매일 정기적으로 일정한 장소를 산책하거나 약수터 등을 다니며 건강관리를 하는 형태, 운동을 통하여 노후생활의 보람을 찾는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들 중에는 이와 같이 가정 밖에서 여가를 보내려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박종천, 2010).

이윤경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문화활동 참여는 지난 14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친목단체를 중심으로 한 증가였으며, 문화, 스포츠, 시민단체 등의 활동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노인 여가의 형태는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 형태보다도 친교를 쌓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 3. 노인의 여가통행

노인의 통행 패턴과 관련된 연구로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노인실태 조사 자료, 고령자의 통행특성에 관한 연구(조남건, 2001), 청장년층과의 비교연구(노시학 외, 2008), 각각의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관한 연구(노시학 외, 2011a), 고령자 통행의 변화에 관한 연구(노시학 외, 2011b), 한국스마트카드의 무임승차 집계내역을 토대로 노인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을 밝힌 연구(서울연구원, 2012), 노인하차비율이 높은 역의 접근유발요소를 밝히고자 한 연구(이도희 외, 2008) 등이 있다.

먼저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48.9%), 지하철(19.3%)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노인 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버스가 전체의 56.8%로 가장 많았으나, 특별시·광역시만 놓고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이 28.6%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었다. 이는 도시 인프라 구축 차이에 따라 이용 교통수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도희 외, 2008).

[표 2-2] 외출 시 노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교통수단	지역						계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무응답	4	1.8%	5	2.5%	0	0.0%	9	1.8%
버스	80	35.2%	151	74.4%	52	76.5%	283	56.6%
지하철	65	28.6%	1	0.5%	2	2.9%	68	13.6%
택시	26	11.5%	17	8.4%	4	5.9%	47	9.4%
자가용·승용차	43	18.9%	20	9.9%	4	5.9%	67	13.4%
자전거·오토바이	4	1.8%	7	3.4%	4	5.9%	15	3.0%
기타	5	2.2%	2	1.0%	2	2.9%	9	1.8%
계	227	100.0%	203	100.0%	68	100.0%	500	100.0%

\*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자료, 2004. 이도희 외(2008)에서 재인용하여 재구성

앞서 노인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들을 함께 묶어서 분석하였지만, 조남건(2001)의 연구에서는 서울과 과천만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의 교통수단 분포를 볼 수 있다. 50세 이상 응답자 전체 425명 중 전체의 44.7%가 전철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나이가 들수록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전철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서울·과천 응답자의 교통수단 분포

	계	승용차	택시	일반버스	좌석버스	전철	전철의 분담률
60-64세	85	19	4	33	2	29	34.1%
65-69세	85	10	7	24	1	44	51.8%
70-74세	70	15	3	19	0	37	52.9%
75세 이상	33	9	2	6	0	20	60.6%
계	273	53	16	82	3	130	47.6%

조남건(2001)에서 재구성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수단 분포와 교통수단 선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들은 통행시간보다는 통행비용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빠른 교통수단을 선택하기보다는 느리더라도 비용이 저렴한 보행이나 전철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철역에서 10분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전철이용을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남건,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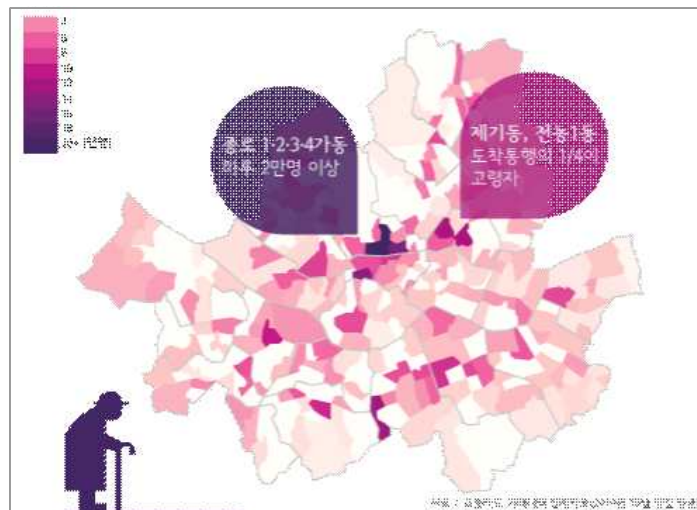
2002년과 2006년의 노인통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동빈도와 통행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통행 거리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65세부터 69세 사이의 ‘젊은’ 노인 인구의 모빌리티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노시학, 2011b). 젊은이들과 비교해 볼 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 목적의 통행이 급격히 증가하며, 체험하는 공간적인 다양성은 감소하였다(노시학, 2008).

이렇게 도시교통체계를 통해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진 노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 서울연구원의 인포그래픽스(2012)와 이도희 외(2008)의 연구는 노인의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은 도심과 동북권이 대다수임을 보여준다. 서울연구원은 2011년 10월 평일 평균 도착 통행량을 기준으로 노인의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을 조사하였는데, 상위 지역은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회현동, 전농1동, 방배2동, 제기동이였다. 지하철 접근성,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공원, 대규모 전통시장, 교통의 결절점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도희 외(2008)의 연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총 하차인원 대비 경로우대 무임승차권 소지 하차 노인비율을 환산하여 지하철역 별 노인하차비율 순위를 구하였다. 분석결과, 제기동역, 종로5가역, 청량리역, 종로3가역, 동묘앞역 등이 노인하차비율이 20%를 넘는

역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자연환경요소 중에는 산과 하천이, 인문환경요소 중에서는 재래시장과 한의원이 도시에서 노인의 접근을 유발하는 요소였다. 한편, 지하철을 이용해서 먼 거리의 공원에 접근하는 것은 몇몇 특별한 장소에 한하고, 대부분은 근린공원에 접근하기 때문에 공원과 관련된 분석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체 역을 6개 패턴으로 분류한 결과, 6개 지역은 공원의 영향을 받은 지역, 도림천·중랑천의 영향을 받은 지역, 산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재래시장의 영향을 받은 지역, 터미널 및 재래시장, 한의원의 영향을 받은 지역, 역사유적 및 전통문화, 노인복지시설의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2-1] 고령자의 도착통행량 분포 (서울연구원, 2012)



[그림 2-2] 지하철역별 노인하차수(김도희 외, 2008)

## 제 2 절 노인 여가와 공원

### 1. 노인의 여가장소 선택

여가활동은 인생 단계에 다른 특유의 사회적, 경제적, 물질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들은 성별, 연령, 경제수준, 교육수준, 동거형태 등을 노인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구분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차이를 보면, 남성들은 친구와의 모임이나 운동·등산·낚시 또는 장기·바둑·화투 등 가정 밖에서의 여가활동이 많은 편이다. 여성들은 가족 중심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며 종교 활동 등 정적인 활동이 많은 반면, 운동이나 관광 등 능동적인 취미활동은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이가옥 외, 1994). 노인시설을 선택할 때에도 남성은 교통이 편리한 곳, 거리가 멀더라도 시설이 좋은 곳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곳을 선호한 반면, 노인은 집에서 가까운 여가시설을 원하고 있었다(김인기, 1999).

연령의 증가는 여가 활동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연령에 따라 모든 여가활동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여가활동의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건강이 감소하므로 동적인 활동보다는 정적인 활동이 증가되고 가정 밖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가정 내에서 하는 활동을 더 선호하게 된다(이선미, 1991; 장인협 외, 1987).

경제적 수준 역시 여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적 수준은 직업의 유무, 수입과 용돈, 자산수준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은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Smith & Freedman, 1972).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여가를 즐길만한 심리적 여유도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 노인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공간상 이동의 불편함이 없는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그리고 화투, 장기 등의 오락을 즐기는 비율이 일반 노인보다 높은 편이다(박재간 외, 1996).

높은 교육수준은 경제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화의 기회를 높게 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할 가능성을 높인다(이선미, 1991). 또한 교육수준은 이

는 노후소득 등의 경제적 자원,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크기와도 정비례하고 있었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장소로써 가까운 곳보다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기, 1999). 이밖에 노인의 여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거주형태 및 주택소유형태, 건강과 의료비, 자녀·친척과의 교류, 라이프 스타일 등이 있다.

배우자의 유무 및 결혼 지속상태도 여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만 배우자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개별 여가시간이 증가함과 동시에 심리적 외로움, 역할 상실감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노인복지시설의 선택에서는 경로당의 한계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경로당은 전국에 60,737개, 노인복지관은 259개가 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는 친목도모가 89.7%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높은 것은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다. 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가프로그램 이용’이 5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거리와 교통이 불편해서’가 31.0%로 가장 높아서 3.2%인 경로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로당에 대한 불만은 특히 도시 중산층 노인들로부터 많이 지적되었다(김익기 외, 1999). 임춘식(1997)에서도 경로당은 매우 협소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여러 제약점이 있었는데, 노인들도 경로당이 휴식처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여가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한경혜 외(200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같은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리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일 중심적 패턴을 가지고 살아온 남성노인이나 생산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고령의 노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여가에 대해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연령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인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별로 이용하지 않지만 경로당의 주 이용층과 성향이 다른 경우,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집에서 가까운 시설보다는 거리가 멀더라도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한 곳을 선호하는 남성 노인의 경우, 여성 노인보다 낮은 만족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노인의 공원 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기는 대체로 생산력이 없는 시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부여되는 공간은 더욱 주변화되고 희소해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과 같은 노인의 공간은 사회가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한경혜, 2009). 그러나 여가시설이나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뿐 아니라 도시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고령자가 많고, 이 때문에 경로공원, 실버공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원도 많다(양재준, 2007). 조남건(2001)의 연구에서도 보면, 고령자의 주요 외출 장소에서 공원은 경로당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방문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2-4] 서울지역 고령자의 주요 외출장소와 1주당 빈도

	50-64세	65세 이상
표본수	154	322
평균	0.61	0.65
친구네집	0.79	1.05
병의원	0.48	0.71
동네슈퍼	<b>1.60</b>	1.22
대형백화점	0.36	0.15
경로당	0.89	<b>1.87</b>
은행, 증권사	0.50	0.08
동사무소	0.19	0.12
예술회관	0.15	0.3
시내공원	0.70	<b>1.44</b>
스포츠센터	0.42	0.3
종교시설	0.60	0.67
음식점	0.57	0.23
가족, 친족 집	0.57	0.95
기타	0.71	0.08

조남건(2001)에서 재구성

노인과 공원을 연결 짓는 연구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인수·김인중(1999), 오기노 치히로(1999), 이소영·김혜정(2003), 박승진(2003), 이강원(2004), 이구석(2009)은 서울의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장수용(2005)은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등 서울시내 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양재준(2007)은 부산의 용두산 공원, 김문일(2012)는 경주시 황성공원, 박종미(1998)는 광주공원과 사직공원, 송혜자(2008)는 청주 중앙공원을 사례로 연구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구들은 노인들의 공원이용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시의 광주공원에서는 바둑·장기, 담소,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경주시 황성공원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독서, 경로당에서의 활동, 포장마차 이용, 스포츠 관람, 운동·산책, 또래 노인들과의 만남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산의 용두산 공원에서는 대화, 운동, 장기·바둑, 구매·관람, 술·노래 등이 주요 활동으로 관찰되었고, 서울 시내의 공원들에서는 휴식·산책, 운동, 만남·대화, 자연 즐기, 가족과의 활동, 관람, 사진촬영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주 중앙공원에서는 바둑·장기·윷놀이, 화투, 담소, 무료급식, 이·미용 서비스, 무료진료·검진, 문화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가공간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고령자에 관한 논문들은 주로 이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공원 이용자를 분석함으로써 공원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시설을 보충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원을 노인 복지의 중심으로 하는 ‘노인복지타운화’를 주장하거나(박종미, 1999; 이소영 외, 2003; 김문일, 2012; 송혜자, 2008), 적어도 노인들이 쉽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결론으로 주장하고 있었다(장수용, 2005, 양재준, 2007).

### 3. 노인과 종묘공원

노인들의 종묘공원 이용은 탑골공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이 탑골공원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파고다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공원을 재정비한 1983년부터로 당시 이용자의 40%가 노인들이었다고 한다. 또한 1991년에 이루어진 시설개보수, 지하철의 연결,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탑골공원은 서서히 ‘노인공원’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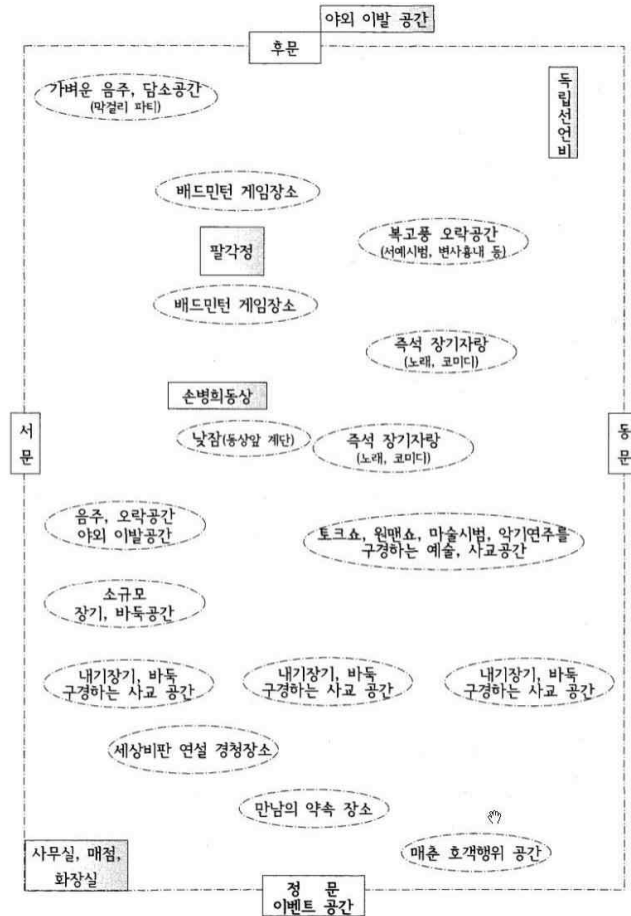
노인들이 공원으로 모여들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저렴한 식당들이 생겨나고, 불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이 이어졌으며, 주변 거리에는 노인들 취향에 맞는 물품들을 취급하는 노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노인들이 탑골공원을 찾게 만드는 요인으로 다시 작용하였다. 1996년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탑골공원은 하루 이용 노인의 수가 3000여명의 수준에 이르렀고, 공원의 이용행태는 단순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여 소일하는 수준이 아니라 만담, 강의, 고사성어, 붓글씨 등 다양한 노인문화의 형태로 나타났다(박승진, 2003).

기존의 연구들은 교통의 편리함,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노인정 등 근린시설에 대한 불만, 외부공간에 대한 선호, 노인들이 놀기 좋다는 소문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 노인들이 많이 모임으로서 생겨나는 상행위와 무료서비스들이 노인들을 모이게 하는 요소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이소영 외, 2008; 오기노 치히로, 1999). 이는 앞서 살펴본 타 지역의 공원의 이용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탑골공원이나 종묘공원은 지하철의 접근성을 토대로 더 많은 노인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규모가 다양한 활동, 다양한 구경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이강원(2004), 김소진(2009), 한성미 외(2009), 정진웅(2011) 등 서울의 종묘공원과 탑골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노인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사회담론과 연결하고자 하는 연구도 다수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노인들은 종묘공원에서 하위집단을 형성하고, 불문율과 의례 등을 공유함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이용자들 안에서 자신들을 제약하는 심리적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 동류의식과 위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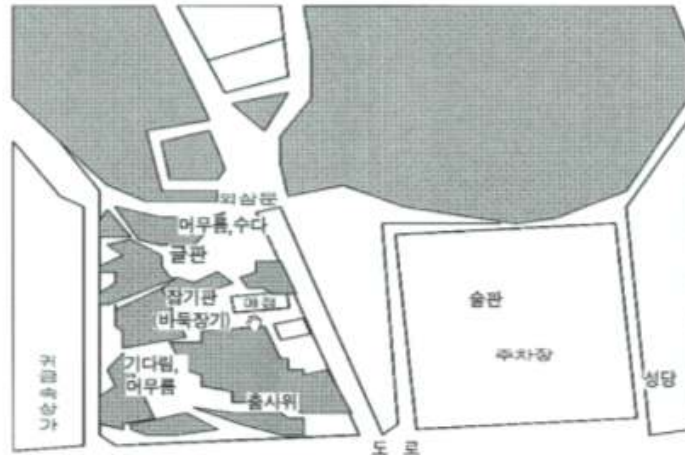
는 레저나 오락 등 개인적 여가공간이기보다는 집단사회활동이 활발한 대중적 여가공간으로써의 성격을 가진다(이인수 외, 1999).

이구석(2009)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 종묘공원으로 옮겨 오기 이전, 탑골공원에서 이루어지던 행위는 음주, 담소, 배드민턴, 서예, 장기자랑, 낮잠, 만담, 바둑·장기, 매춘 호객 등이었으며, 공간의 이용 패턴은 다음 그림과 같았다고 한다.



[그림 2-3] 탑골공원의 이용행태도, 이구석(2009)에서 인용

종묘공원으로 옮긴 이후 종묘공원 성역화 사업 이전, 2003년의 이용분포는 다음과 같다. 종묘공원 내 이용 형태는 오른쪽 영역은 대부분 먹고, 마시는 분위기의 술판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왼쪽 영역은 탑골공원에서처럼, 의자나 스탠드에 앉아 장기와 바둑판을 벌이거나, 구경하고 있는 노인, 앉아서 이야기 하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활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구석, 2009;38).



[그림 2-4] 종묘공원 이용 행태도. 천윤실(2003)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들의 공원 이용은 공원들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들을 배제하려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왔으며, 이는 2001년 탑골공원의 성역화사업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이강원, 2004). 탑골공원에 많았던 벤치는 거의 치워지고, 공원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활동은 금지<sup>1)</sup>되었다.

이후 활동의 중심이 종묘공원으로 옮겨간 뒤에도 갈등은 계속되었다. 종묘가 1995년 유네스코로 지정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집중적인 이용은 더욱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탑골공원에 이어 종묘공원도 2007년 11월부터 성역화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와 동시에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던 국악정이 철거되고, 무료급식도 금지되었다. 이처럼 공원에서 행해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이용하던 시설의 축소, 무료서비스들에 대한 단속 등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면서

1) 돛자리·신문지 깔고 앉는 행위, 바둑·장기 등 오락행위, 음주·가무 등이 모두 금지되었다. 또한 저녁 6시 이후에는 공원을 폐쇄한다.

최근까지도 활동의 영역이 이동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한 기사<sup>2)</sup>는 노인들의 종묘공원 이용을 ‘난장판’이라고 묘사하면서 박카스 아줌마, 술판, 윗놀이와 화투놀이, 노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인들의 성병이나 불법도박에 초점을 맞춘 기사<sup>3)</sup>도 있었다. 공원에서의 여가가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데도, 그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기사에서 당시 탑골공원의 관리소장인 손병희씨는 ‘단속을 안 하면 이 일대가 노인 및 노숙인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sup>. 이들이 원하는 종묘공원의 모습은 노인들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인 것이다.

서울시는 노인들의 공원이용을 통제하면서 대체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였고, 이 노인복지센터는 하루 평균 3000여명의 노인이 이용한다고 한다. 2010년에는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실버문화벨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서울노인복지센터~탑골공원~종묘공원 구간을 노인전용 극장을 비롯해 공연장, 노래방, 북 카페, 노인용품점 등이 들어서는 ‘노인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센터 측은 2009년 계획한 실버문화벨트 사업 가운데 노인전용공연장과 전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종로지역 일대가 실버문화벨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버북 카페나 노인용품점 등 노인문화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가섭 서울노인복지센터장의 말<sup>5)</sup>은 노인들의 종로 밀집을 억제하고자 하는 탑골공원의 관리소장의 말과 묘한 대치를 이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노인들의 공원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최대한 거리와 관광객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기관과 시설 내에서의 여가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한국일보, 2007. 6. 5, “종묘공원, 난장판 아웃”

3) 동아일보, 2009.8.25., “두 얼굴의 종묘공원 제자리 찾기”

4) 서울신문, 2009.2.6. 8면, “탑골공원 → 종묘공원 어르신 쓸쓸한 대이동”

5) 서울행복도우미 블로그, 2010.04.15. 게시

### 제 3 절 소 결

노인층이 증가하고 건강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이 가능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세대는 연령집단, 교육수준, 경제수준 그리고 건강상태, 지역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다. 노인에게 여가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가정 내의 여가가 주로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가정 밖의 여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정 밖의 여가활동도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 형태보다도 친교를 쌓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노인들의 통행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버스이지만 대도시 등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은 노인들의 통행 거리를 증가시키는 등 노인들의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서울의 경우, 길어진 통행거리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은 대체로 종로구와 동대문구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도심의 장소를 선호하는 노인들은 가정 밖의 여가를 선호하지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성’이 많았으며, 이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공간은 공원이었다. 이러한 노인들의 공원 이용은 서울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루어지는 활동도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종묘공원은 현재 노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장 유명한 장소이며,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노인들이 공원을 선호하는 이유들을 기술하고, 노인들에게 더 나은 공원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인들의 공원 이용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라는 점에서 정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 왔고, 연구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정부는 노인들을 공원보다는 시설에 수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 오고 있다. 정부는 탑골공원을 성역화하면서 노인복지관을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공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종묘공원을 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

유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공원은 일상적인 여가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역사적 장소’로써 관광객들의 눈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을 제외한다면, 노인들이 여럿이 모여 여가를 보내는 공간은 정부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노인들의 여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도 탐골공원과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여가문화를 형성해가며 놀 수 있었다. 또한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무료급식이나 무료 이·미용, 봉사, 공연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서비스들도 집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원은 노인 복지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시각으로 보자면, 앞으로 종묘공원에서도 노인의 이용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모이기 위해 필요한 이동을 충분히 감내한다면, 그리고 공원에 대한 선호가 탐골공원이나 종묘공원의 특수한 구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여가장소는 종로3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만들어 질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이동과 여가공간 선택을 같이 다룬 경우가 별로 없다. 또한 선호하는 이유들을 다양하게 밝히기는 하였으나 어떤 이유가 가장 크게 방문빈도와 체류시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장에서부터 실증 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제 3 장 노인의 종묘공원 이용행태 특성

### 제 1 절 분석틀

#### 1. 현장 관찰

관찰조사에서는 노인들의 종묘공원의 이용을 공원 내부와 공원 외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원 내부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과거의 공원 이용모습과 현재의 이용모습을 비교해 볼 것이고, 현재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모습으로는 하절기와 동절기 차이, 바둑·장기 두기, 서예판, 정치집회, 선물집 이용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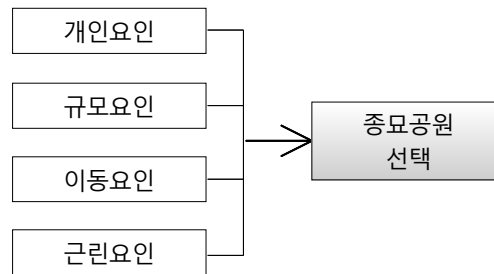
공원 외부에 대해서는 탐골공원과 종묘공원 주위의 토지이용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주로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음식점, 노점, 이발소, 기원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 2. 설문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근린보다 종로지역을 선호하게 되는 원인을 허프(David Huff)의 중력모델 개념을 차용하여, ‘규모’와 ‘이동’의 측면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쇼핑센터를 선택할 확률은 지역 내 각 쇼핑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합(총 효용) 대 그 점포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비율이며, 각 쇼핑센터의 매력은 소매센터의 크기에 비례하고 소비자의 도달 교통 시간에 반비례한다고 주장하였다(양학림, 2004).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특징들에 긍정 하는 정도를 ‘규모요인’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때 규모란 크기와 다양성을 포함한 개념으로써, 종묘공원에서는 근린에 비해 더 큰 규모의 활동, 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노인

들의 이동시간, 교통수단, 교통비용, 이동에 대한 인식 등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이동요인’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선행연구에서 여가장소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연령, 경제수준, 배우자 유무 및 결혼 지속상태, 교육수준과 이와 연관된 은퇴 전 직업을 ‘개인요인’으로 묶어서 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근린에 이용할 시설이 없어서 이곳을 이용하느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린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근린요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림 3-1] 분석 모형

공원이용특성, 개인요인, 이동요인, 규모요인, 근린요인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선행연구의 조사항목을 참조하여 아래 표와 같은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할 공원 이용 특성으로는 방문빈도와 체류시간을 선정하였고, 개인요인 중 경제적 수준은 여가에 사용하는 ‘한달 용돈’으로 측정하였다. 배우자 유무 및 결혼 지속상태는 ‘동거유형’으로 규정하고, 배우자 유무와 더불어 동거인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규모요인으로는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와 공원 이용에 대한 평가 두 가지 영역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공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 내용을 8가지로 압축하고, 각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또한 공원 이용에 대한 평가는 공원 내부의 자체적 매력과 공원 주변 지역의 이용에 대한 평가로 나누고, 자체적 매력에 대한 문장 6개, 주변 이용에 대한 문장 2가지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근린요인으로는 실제 근린 이용에 대한 인식을 2가지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로 알아보고, 종묘공원 이외에 자주 다니는 곳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현재 거주지는 어디인지 질문하여 방문자의 지역적 분포를 알아보고, 해당 거주지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 정도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에 대해 알 기회가 많으며, 이를 통해 근린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한다.

[표 3-1] 변수 설정

요인	내용
공원 이용 특성	방문빈도, 체류시간
개인요인	연령, 최종학력, 은퇴 전 직업, 한 달 용돈, 동거형태
이동요인	교통수단, 이동비용, 이동시간, 체력부담, 시간부담, 지루함
규모요인	주로 하는 활동, 자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 주변지역 이용에 대한 평가
근린요인	근린지역 이용에 대한 평가, 자주 다니는 다른 곳, 현재 거주지, 현재 거주지 거주기간

각각의 변수들의 측정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면접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규모요인에서 괄호 안의 내용은 변수이름을 요약한 것이다.

[표 3-2] 변수별 코딩내용

요인	변수	측정
공원 이용 특성	방문빈도 (비교변수)	1=1년에 1-2번 정도 2=한 달에 한 번 이하 3=한 달에 3-4번 4=일주일에 2-3번 5=거의 매일
	체류시간	연속형 변수
개인 요인	학력	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 이상
	은퇴 전 직업	1=농어업, 기타, 2=공장, 건설 3=장사, 사업, 서비스 4=사무실, 5=전문, 기술, 관리
	용돈	연속형 변수
	동거유형	1=혼자 거주, 2=동거 동거인 경우 동거 가족 표시
규모 요인	주로 하는 활동	산책·바람쐼기, 사람구경 친구·아는 사람과 대화 식사·간식·술, 바둑·장기 책·신문, 영화, 연설·정치이야기
	다양한 사람이 많이 모여서(다양한 사람)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아는 사람이 많아서(아는 사람)	
	여기에 오면 재미있어서(재미)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유일성)	
	돌아다니며 놀 수 있어서(주변 이용)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많아서 (가게 이용)	
이동 요인	이동시간	연속형 변수
	교통비용	연속형 변수
	시간적 부담을 느낀다(시간부담)	1=부담이 전혀 없다 2=부담이 없는 편이다
	체력적으로 힘이 든다(체력부담)	3=보통이다 4=부담이 된다
	이동하는 것이 지루하다(지루함)	5=매우 부담이 된다
근린 요인	동네에 갈 만한 곳이 없어서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다니기에 가까워서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공원 외 자주 다니는 곳	직접 기록
	현재 거주지	직접 기록
	거주기간	연속형 변수

## 제 2 절 종묘공원 이용행태

### 1. 공원 내부의 이용행태

아래의 종묘이용행태 지도는 설문조사가 있던 2013년 3월과 6월에 연구자가 관찰한 활동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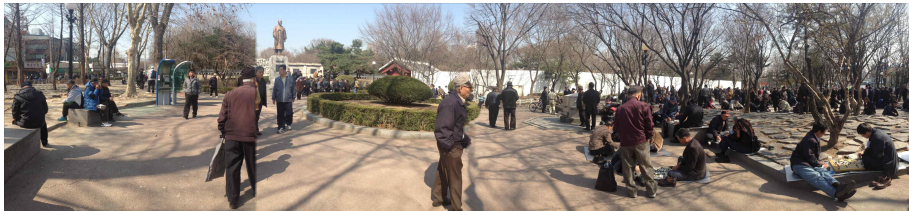
[그림 3-2] 종묘공원 동절기 이용 행태



[그림 3-3] 종묘공원 하절기 이용 행태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그림에 보이는 도로면의 펜스는 예전부터 있던 것이지만, 종묘로 진입하는 중앙 통로의 펜스는 설문을 진행하던 중 3월 22일 금요일에 설치한 것이다. 이전의 이용 상황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현재는 펜스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만 노인들의 이용이 집중되고 있다.

공원의 이용은 오전부터 시작되기는 하지만 점심을 먹고 난 뒤 1시부터 3~4시 정도까지가 가장 이용자가 많은 시간이다. 당연하지만, 동절기보다 여름의 이용자수가 훨씬 많다. 동절기에 여유롭던 벤치는 여름에는 여러 명이 끼어 앉을 만큼 뽁뽁해지고, 바닥에 앉는 사람의 수도 훨씬 많아진다. 동절기에는 5~6시 사이면 대부분의 이용자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반면, 여름에는 7~8시까지도 꽤 사람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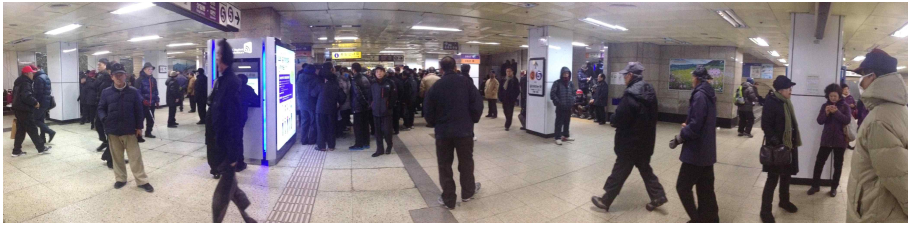
[그림 3-4] 동절기의 이용모습-이상재 동상 부근(오후 2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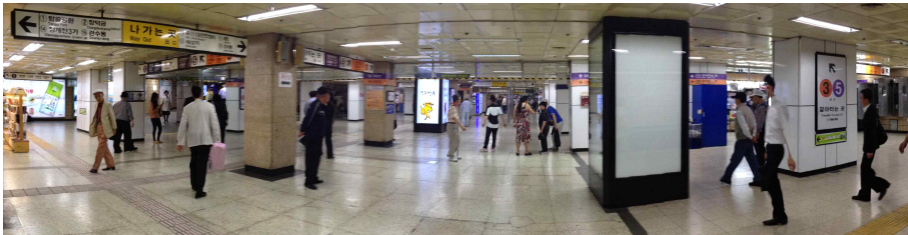
[그림 3-5] 하절기의 이용모습-이상재 동상 부근(오후 2시 30분경)

먼저 차이가 나는 것은 햇빛에 대한 반응이다. 동절기에는 햇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반면, 하절기에는 그늘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있게 된다. 그에 따라 동절기에는 동상 앞에서 이뤄지던 서예 및 옛날이야기 판은 하절기에는 펜스 옆으로 자리를 옮겼고, 햇볕이 드는 종묘공원 입구 앞에서 서서 이뤄지던 자칭 ‘애국보수’ 노인들의 토론은 앉을 수 있는 각 구역으로 흩어졌다. ‘진보구역’이라고 불리는 화장실 옆 토론 장소는 나무가 있어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여름에는 신문지를 깔고 돌바닥 위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입구에서만 앉아 있던 여성노인들은 귀금속 상가와 맞닿은 담벼락에도 앉아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되었다. 종묘로 접근하는 종로3가역의 이용도 차이가 난다.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인들이 앉거나 서서 북적이는 반면, 여름의 지하철역은 보통의 다른 지하철역과 유사하다.



[그림 3-6] 동절기의 지하철역 이용 (오후 3시경)



[그림 3-7] 하절기의 지하철역 이용 (오후 3시경)

공원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룹은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그룹인데, 공원 중앙의 돌벤치가 밀집된 지역이 주 무대이다. 자리가 부족하면 돌바닥이건 화단 경계석이건 돛자리를 깔 수 있는 대로 앉아서 바둑을 둔다. 바둑판이나 장기판은 본인이 가져와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둑판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빌려서 두는 것이다. 판을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 그룹이 있고, 각 그룹마다 대체적으로 자리를 까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 한 그룹은 보통 2-3명이 팀을 짜서 일하고, 바둑판과 깔고 앉을 돛자리를 빌리고 커피 한 잔을 대접받는 값은 1000원이다. 동네 기원에서는 바둑을 두는 비용이 대체로 5000원이어서 종묘공원에서의 비용이 1/5 정도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 동절기의 바둑



[그림 3-9] 하절기의 바둑

공원에 자주 보이는 서예판의 경우, 자주 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종묘공원문인협회’라는 친목조직이 존재하고 있었다. 스스로 회장이라고 칭하는 노인은 예전에 탑골공원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같이 옮겨왔으며 회원 명부는 100명이 다 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전체 회원이 다 모이는 경우는 없지만 회원이 많아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모임이 유지된다고 한다. 자신은 인천에 살지만, 인천에 모이는 사람은 워낙 적어서 이곳에 온다는 것이다.



[그림 3-10] 동절기의 서예판



[그림 3-11] 하절기의 서예판

또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2시쯤 시작하는 정치집회는 거의 ‘보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자체적으로 형성되며 플래카드를 들고 와서 이루어진다. 두 그룹이 활동하는데, 한쪽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고, 다른 한 쪽은 ‘자유시민총연합’으로 아예 돗자리며 의자 등을 들고 다니며 ‘시국강연’을 한다. 이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노인들도 있어서 한 노인은 이것을 듣기 위해서 종묘공원에 오고, 다른 곳에도 집회가 있으면 모두 쫓아다닌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림 3-12] 하절기의 정치집회 모습(자유시민총연합)



[그림 3-13] 하절기의 정치집회모습(대한민국어버이 연합)

공원의 동북쪽에는 선술집 몇 개가 모여 있는데, 1000원을 내면 서서 소주 한 잔과 몇 가지 안주를 먹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선술집’이다. 술을 마시는 노인들은 여기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선술집과 함께 동북쪽에는 음료를 파는 아줌마 할머니들이 모인다.



[그림 3-14] 종묘공원 근처의 선술집

대화를 하는 노인들은 바둑을 두는 장소 옆에 일렬로 놓여진 벤치를 이용하거나, 멀찍이 떨어진 한가한 곳의 벤치, 매점 앞에 놓여진 돌벤치를 이용한다. 매점 앞 벤치에는 이곳에 항상 앉아 있는 노인들을 위해 아침마다 박스들이 깔개로 깔려진다. 노인들은 한 군데 오래 앉아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옆을 옮겨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공원을 한 바퀴씩 돌아보기도 한다.



[그림 3-15] 매점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림 3-16]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이야기하는 자리

한편 직접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았지만 여성노인들의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남성노인들은 간간히 목격할 수 있었다. 여성 노인이 직접 상대에게 ‘이리 와 앉아보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보다는 귀금속 상가 옆의 공원 담이나 공원 입구 옆의 벤치 등 사람들이 드문 곳에서 이루어진다. 여성 노인끼리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공원에서 목격되는 여성 이용자는 화장실을 이용하러 공원에 오는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혼자 와서 크로스백을 매고 멀뚱히 앉아 있거나 노점을 하는 여성 노인들이었다. 공원의 이용은 확실히 남성노인이 지배적이었다.

이상의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많은 것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매일 매일 다른 사람이 오면서 공원은 지루하지 않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누군가 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동네에서는 바둑 둘 사람이 없던 사람도 이곳에 오면 여러 상대를 바꿔가면서 둘 수 있게 되고, 서예관의 경우에도 누군가가 오지 않더라도 항상 몇 사람은 공원에 오기 때문에 항상 글씨를 쓰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 오면 우선 처지가 거의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날 확률도 높아진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 사람들을 관찰하는 재미도 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기도 하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 중에 끼어들어도 다들 군소리를 하지 않고 끼워준다. 들어보니 같은 고향 사람이라거나, 비슷한 일을 했거나, 같은 동네 사람이면 갑자기 친한 사이가 된다. 이상한 소리를 한 다 싶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싫은 소리를 하면서 쫓아내기도 한다.

사람이 많고, 자주 오는 사람이 많다보니 자꾸 보다보면 서로 알아볼 만큼 익숙한 사이가 되고, 오래 공원에 머무르면서 아는 사람도 많아진다. 공원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같이 놀기 위해 굳이 구구절절이 아는 친한 관계가 아니어도 되고, 서로 배경에 대해서 잘 묻지도 않는다. 한편 아주 잘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같이 놀고, 맞지 않으면 놀지 않아도 되는 ‘자유’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원이 가진 공간적 특성도 한 이유가 된다. 우선 펜스 설치 이전으로 봤을 때, 공원은 다른 공원에 비해 벤치도 많고, 공간도 넓은 편이어서 많은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다 각각의 취향에 따라 서로를 분리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자는 각자의 활동을 존속하기 위한 영역을 가지게 되고, 공원 안에는 나름의 공존을 위한 질서가 존재하게 된다.

종묘공원의 관찰조사를 통해 느낀 점은 과거 탑골공원에서 이루어지던 활동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1990년대에 이루어지던 활동이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지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더라도 새로운 노인층이 계속 유입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공원이용이 특정한 출생 집단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원은 201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또 다른 공사를 앞두고 있다. 하절기 조사를 나간 둘째 날(5월 25일 토요일)부터 공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현재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면적

전체를 펜스로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재정비공사이다. 설계 도면을 보면, 종로구는 이곳을 여러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 숲과 산책로 위주의 공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노인들은 처음에는 공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마지막 조사를 나갔던 5월 31일에는 대부분 공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대체로 공원이 없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원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나면, 노인들은 다른 장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림 3-17] 종묘공원 재정비사업 안내 플래카드



## 2. 주변 지역의 이용행태

이렇듯 노인들이 많이 찾는 종묘공원 주변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묘공원 주변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았다. 먼저 종묘공원이 위치한 종로3가변의 토지이용은 다양한 용도가 균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종로3가역을 중심으로 대로변과 오른쪽에는 귀금속상가가 원편의 깊은 지역에는 모텔들이 밀집해 있다. 종로3가역의 5호선 출구가 있는 곳에는 국악사들이 모여 있고, 탑골공원 위쪽으로는 악기상가가 밀집한 낙원상가가 위치해 있다.



[그림 3-18] 종묘공원 주변의 주요 토지이용

반면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종묘공원 앞에 몇몇 선술집과 이발소 하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탑골공원의 오른쪽에 밀집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6)</sup>. 이는 노인들이 종묘공원으로 옮겨가고도 여전히 탑골공원 주변을 이용하는 관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6) 이는 노인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실제 이용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작성한 것이다. 음식점의 경우 3000원 이하의 메뉴가 있는지, 술집의 경우 1000원이나 1500원으로 술을 파는지, 이발소의 경우 이발 가격이 3500원인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좌판 및 잡화가게의 경우에는 파는 용품이 노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 표시하였다. 이 집계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제시하였다.



[그림 3-19] 종묘공원 인근의 주요 노인이용시설 분포

노인들에게 이곳의 매력은 취향에 맞는,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구매할 수 있는 싼 가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예전에 탐골공원에서 이루어지던 무료급식은 탐골공원 동북쪽에 위치한 원각사의 무료급식소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이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는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이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대체로 해장국이나 우거지탕 등을 파는데, 식사의 가격은 2000원이다. 이발소의 경우 이발의 가격은 3500원, 염색은 5000원이다. 종묘공원에 앉아있을 때, 이발소를 홍보하려고 명함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기원은 종묘공원에서 두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이용료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동네기원보다는 더 싼 편이다. 좌판은 주로 옷가지나 모자, 신발, 안경 등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품류를 파는데 대체로 가격이 만원을 잘 넘지 않는다.



[그림 3-20] 탐골공원 근처의 저렴한 음식점들과 무료급식소



[그림 3-21] 탑골공원 근처의 이발소들

[그림 3-22] 거리 좌판

앞서 서울시는 ‘실버문화벨트’사업을 통해 서울복지센터부터 탑골공원, 종묘공원을 잇는 길을 노인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안국역에서부터 탑골공원까지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별로 없다. 복지센터에서 연 실버북카페와 실버용품가게가 있을 뿐인데, 탑골공원 주변과 비교해 봤을 때 주변 도로는 한산하다. 오히려 노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귀금속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대로와 이면도로이다. 이 도로들은 상점들이 많은 탑골공원 주변과 종묘공원을 잇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심때면 많은 노인들이 이곳을 오가게 된다.



[그림 3-23]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을 오가는 노인들

### 제 3 절 종묘공원 이용자 특성<sup>7)</sup>

#### 1. 설문조사 개요

현장관찰과 면접조사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동절기 조사는 2013년 1월 중에는 9일과 31일,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유효부수로 184부를 회수하였다. 1월 9일과 31일에는 현장관찰만을 수행하였다. 하절기 조사는 5월 24일부터 26일, 30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101부를 회수하여, 총 설문지 부수로 285부를 확보하였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비가 와서 설문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동절기의 15부, 하절기의 13부를 제외하고는 전체 조사를 연구자 본인이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현장관찰과 면접조사 일정과 회수된 설문지의 부수는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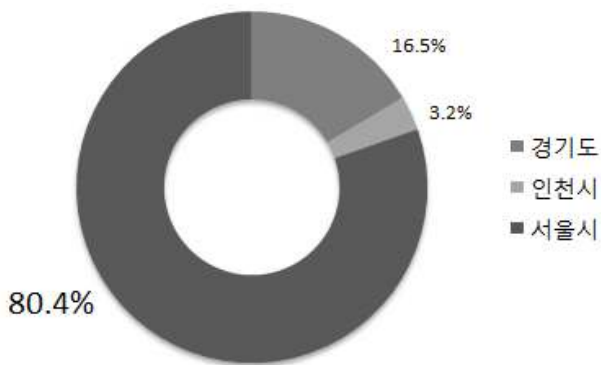
[표 3-3] 조사 날짜와 부수

계절	날짜	기온(최저~최고)	시간	부수
동절기	1/9 수	-11 °C ~ -6 °C	오후	-
	1/31 목	4 °C ~ 12 °C	오후	-
	3/20 수	-3 °C ~ 9 °C	오후	7부
	3/21 목	-4 °C ~ 7 °C	오전	16부
	3/22 금	1 °C ~ 7 °C	오전, 오후	26부
	3/23 토	-1 °C ~ 12 °C	오전, 오후	46부
	3/24 일	2 °C ~ 10 °C	오전, 오후	24부
	3/26 화	-1 °C ~ 10 °C	오전, 오후	25부
	3/27 수	1 °C ~ 15 °C	오후	40부
하절기	5/24 금	16 °C ~ 28 °C	오전, 오후	13부
	5/25 토	18 °C ~ 32 °C	오후	12부
	5/26 일	21 °C ~ 28 °C	오후	10부
	5/30 목	14 °C ~ 25 °C	오전, 오후	30부
	5/31 금	14 °C ~ 28 °C	오전, 오후	36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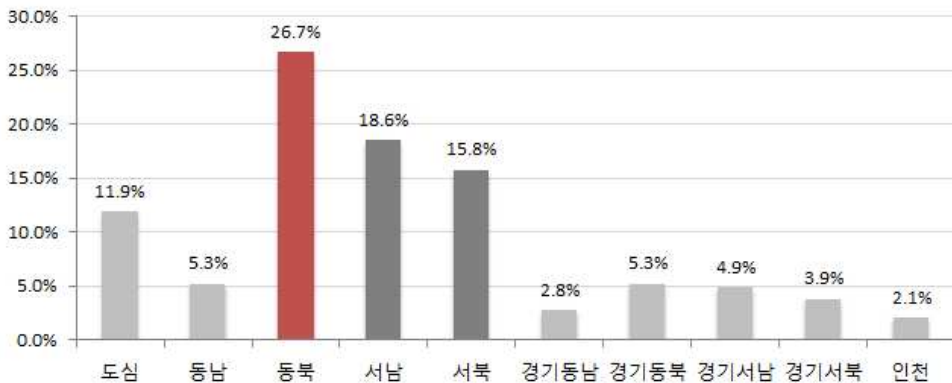
7) 기초통계 표는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응답자의 지리적 분포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이 80.4%로 가장 많고, 경기도, 인천시 순으로 나타났다. 좀 더 권역을 세분화해서 보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5개 권역으로, 경기권은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천은 개별구역으로 나누어 분포를 조사하였다. 지역별로는 가장 가까운 도심권역보다 동북권이나 서남권, 서북권의 이용자가 더 많았으며 동남권 이용자는 가장 적었다. 물리적인 거리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실제 지역별 인구와 노인인구, 공원의 분포나 사회경제적인 분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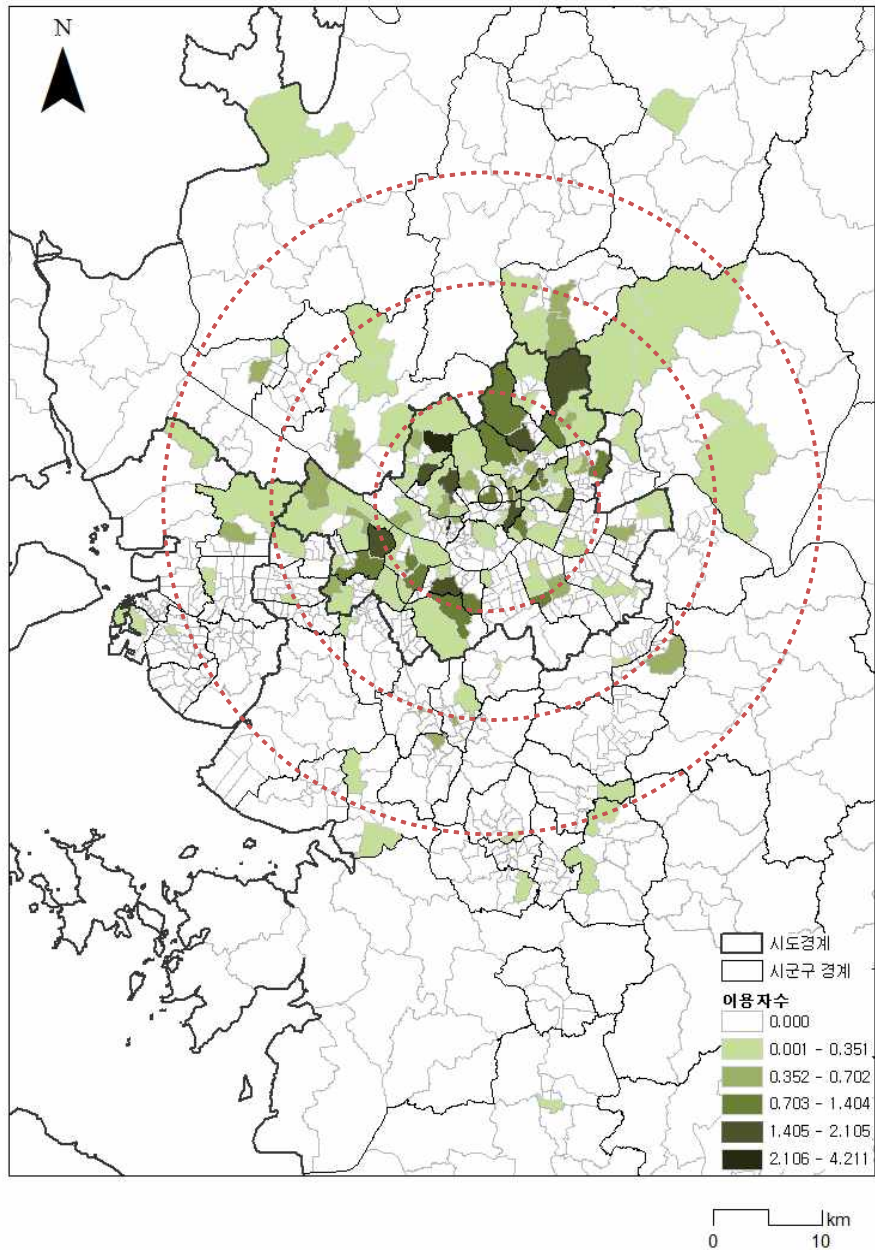


[그림 3-24] 광역자치단체별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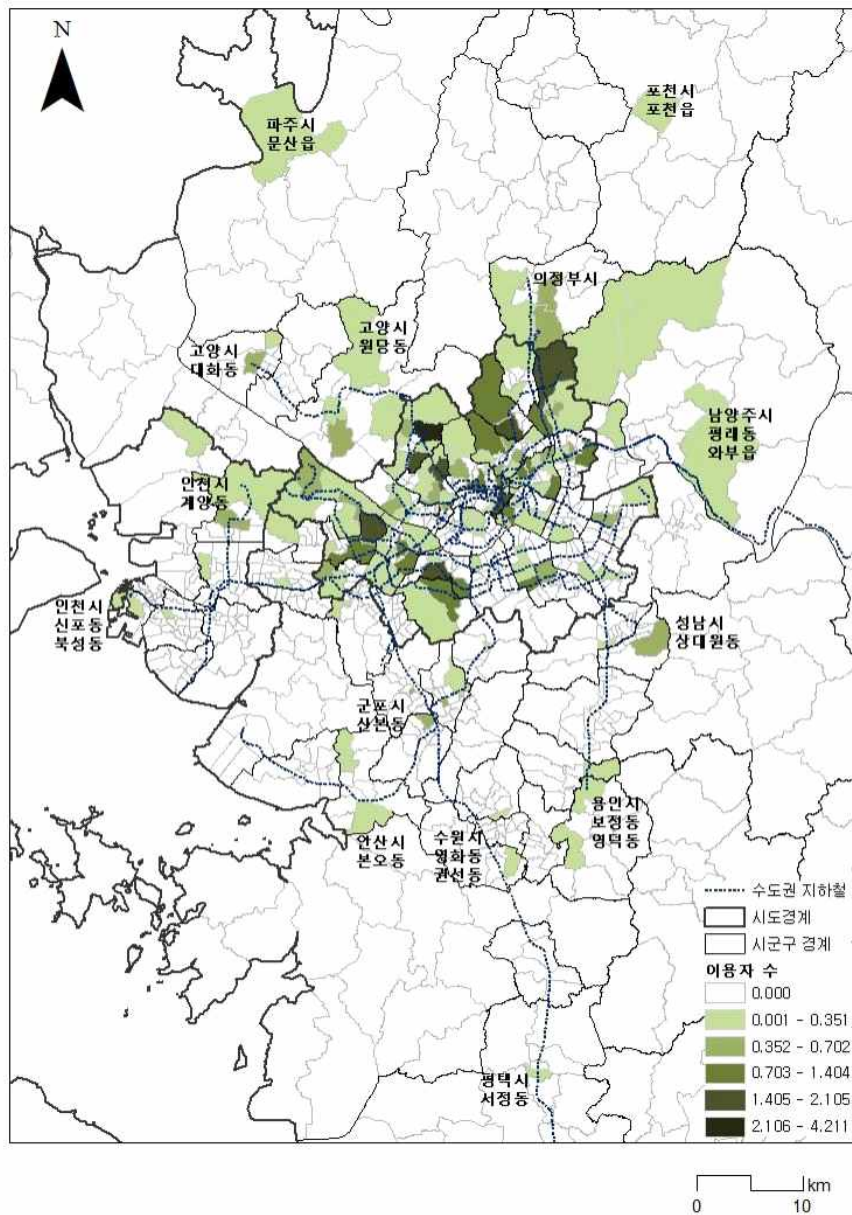
[그림 3-25] 권역별 이용자 분포

읍면동별 이용자 분포는 GIS 프로그램인 ArcMap 10.1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앞서 권역별 방문자 분포에서 살펴본 대로 방문자의 이동 방향은 동북쪽이 가장 많았고, 서남권, 서북권 순으로 방문자가 많이 나타났다. 서남권의 경우, 방문자 수가 많은 동이 다른 방향보다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26] 공원 이용자의 분포(단위는 백 명당 방문자수, 원의 간격은 10km)

다음으로는 노인들의 방문자 분포에 지하철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종묘공원 방문자의 분포와 지하철 노선을 중첩해서 살펴보았다. 서울시 내에서는 지하철 노선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지하철 노선과 방문자수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지 않지만, 경기도와 인천시의 방문자는 대체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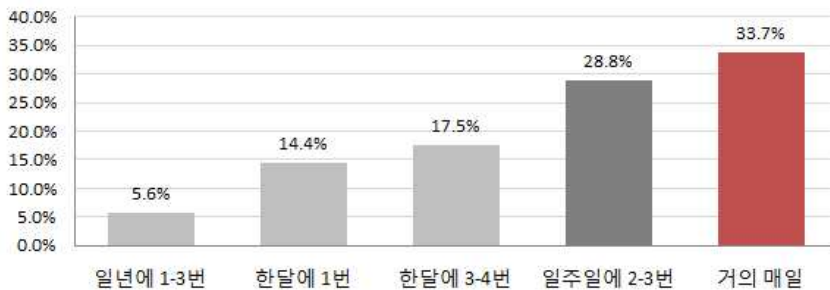


[그림 3-27] 공원 이용자의 분포와 지하철노선(단위는 백 명당 방문자수)

## 2. 요인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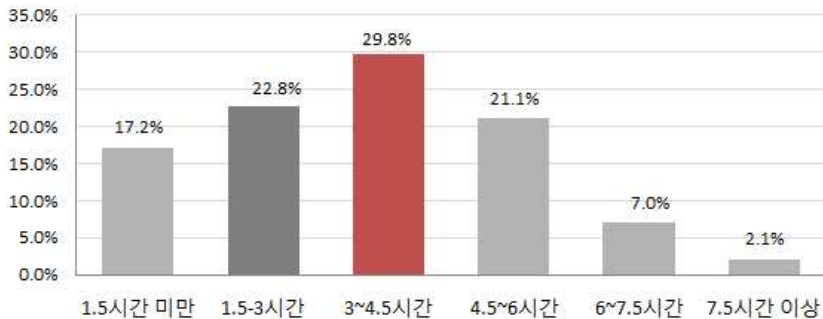
### 1) 이용 특성

종묘공원을 찾는 노인들 중에서는 거의 매일 공원을 찾는 노인들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2-3번이 28.8%, 한 달에 3-4번이 17.5%, 한 달에 1번이 14%, 일 년에 1-3번 또는 처음 방문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공원 방문 빈도

노인들이 공원에 머무는 시간은 3~4.5시간이 29.8%로 가장 높았으며, 3시간 이상 머무르는 노인이 전체의 60.0%를 차지해 장시간 이용하는 노인들의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9] 공원체류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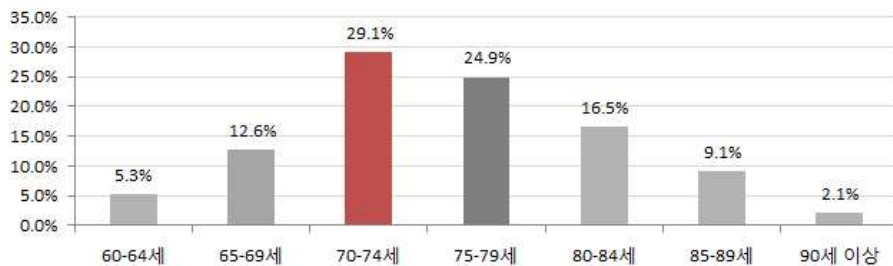
방문빈도와 체류시간을 다른 도시의 다른 공원과 비교해보면, 방문빈도의 경우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광주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에서는 74.3%, 서울시 11개 공원은 67.5%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청주 중앙공원에서는 매일 이용하거나 일주일에 4-5회 이용하는 비중이 74.7%로 공

원을 자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경주황성공원의 경우에는 매일 이용하는 비중이 19.2%, 주 3-4회 이용하는 비중이 27.9%로 자주 이용하는 비중은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3시간 이상 공원에 머무르는 노인의 비중은 경주 황성공원이 6.3%로 적은 편이지만, 서울시 11개 공원은 35.4%였고, 광주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은 4시간 이상 머무르는 비중이 73.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청주 중앙공원의 경우 오전과 오후까지 머무르는 비중이 43.7%로 오래 머무르는 그룹이 가장 많았다(김문일, 2012; 박종미, 1998; 장수용, 2005; 송혜자, 2008).

이를 종합해 보면, 종묘공원을 찾는 노인들의 방문 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며, 체류시간도 크게 길지 않았다. 종묘공원에 모이는 사람의 규모는 다른 곳보다 사람이 더 자주 찾거나 더 오래 머물기 때문이라기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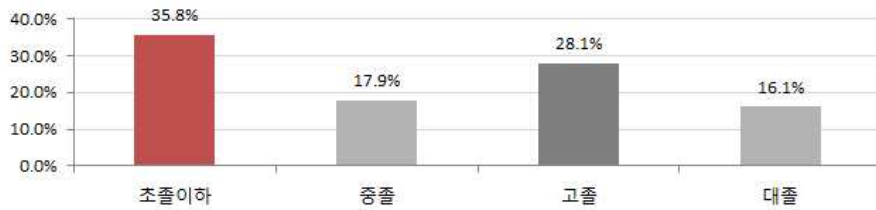
## 2) 개인요인

종로 공원을 찾는 노인들은 70대가 가장 많았으며 60대 노인들보다는 80대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묘공원에서의 인터뷰에 의하면 60대까지는 아직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가를 즐기더라도 등산이나 친구들과 모임 등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원에 적게 온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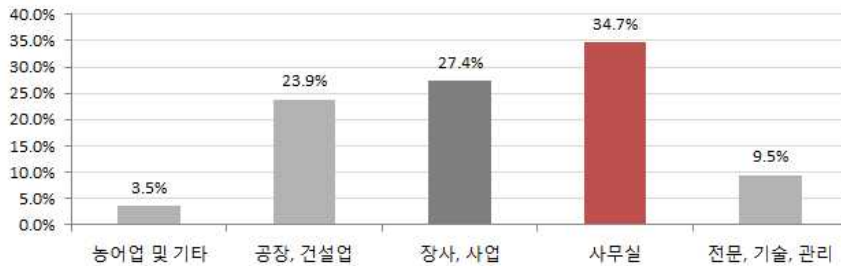
[그림 3-30] 나이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학력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노인층의 평균 학력과 비교해보면, 동일 연령대 대비 학력이 낮은 사람들만이 이곳을 찾는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림 3-31] 학력

은퇴 전 가장 오래 종사하였던 직업을 묻는 질문에서는 직장(사무실)에 다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낮아 대체로 도시생활을 오래 해온 세대임을 알 수 있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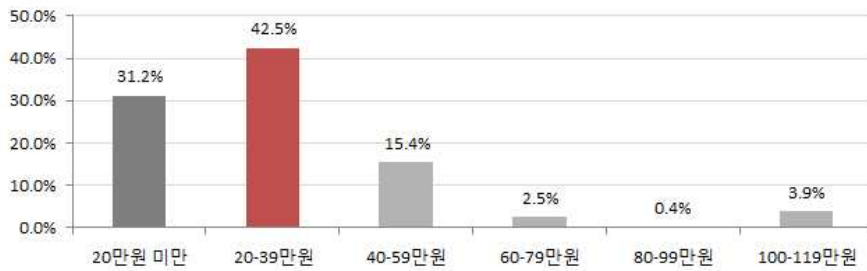


[그림 3-32] 은퇴 전 직업

경제적 상황을 묻는 한 달 용돈의 경우 20-40만원을 쓴다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만원 미만을 쓴다는 응답이 29%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수의 노인들이 공원에 자주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하루에 만 원, 또는 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 이는 쓸 용돈이 아예 없을 만큼 저소득은 아니지만 용돈으로 큰 돈을 쓸 수 없거나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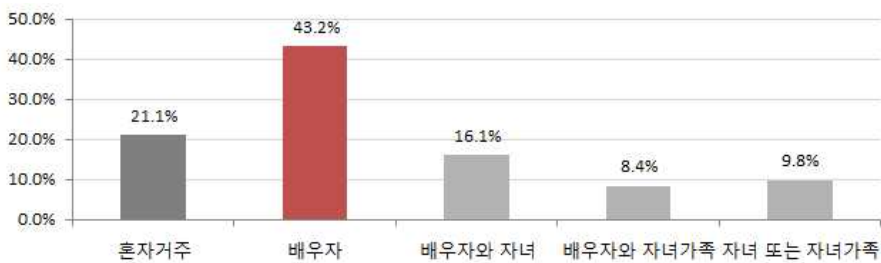
8) 이것은 과거 선행연구(오기노 치히로, 1999)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었다는 응답이 전체 중 40%를 차지하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무척 대조적이다. 1999년의 연구 이후 14년이 지나면서 바뀐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33] 용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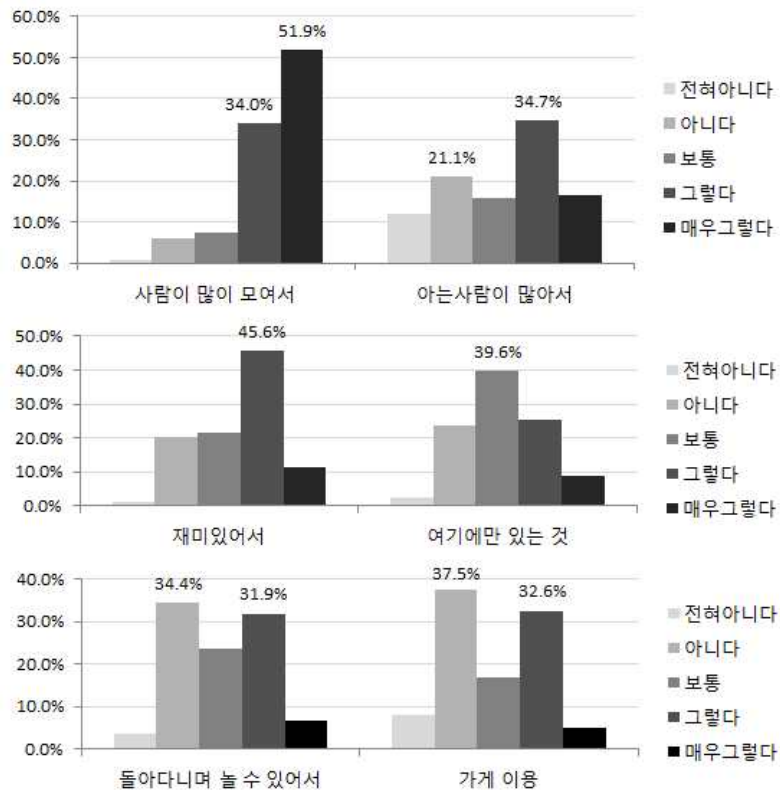
동거형태는 혼자 거주한다는 응답보다 누군가와 같이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4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둘이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부분 독거노인들’이라는 이용 노인들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림 3-34] 동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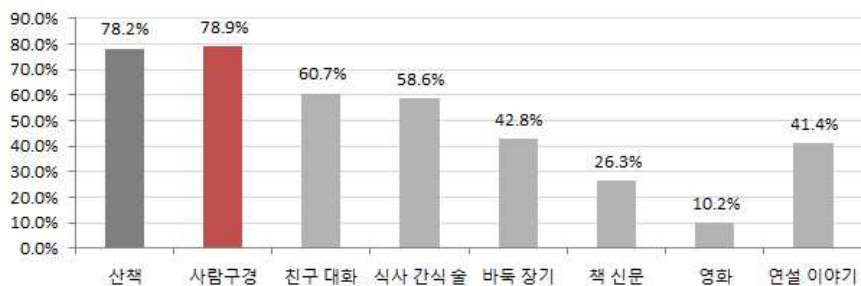
### 3) 규모요인

먼저 종로지역 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는 항목은 ‘다양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여서’였다. ‘이곳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이곳에 오면 재미있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놀 수 있어서’도 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많아서’와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많아서’의 경우 응답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먹지 않거나,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고 오는 경우 가게 이용에 대한 응답은 급격히 낮아졌다. ‘아는 사람이 많아서’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을 있다 가거나 자주 오지 않는 사람들, 오래 있다 하더라도 말을 거는 취미가 없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35] 규모요인

종묘공원을 찾았을 때 주로 하는 활동의 분포를 보면, 산책이나 사람 구경을 선택하는 비중이 70%선으로 가장 높았으며, 바둑이나 장기, 정치 연설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의 40%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를 보는 비중은 10.2%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대체로 친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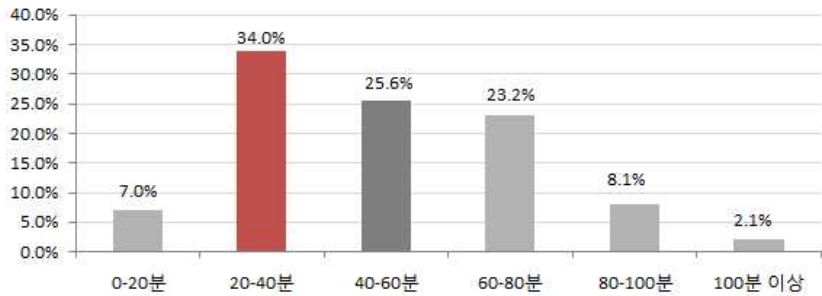


[그림 3-36] 공원에 왔을 때 주로 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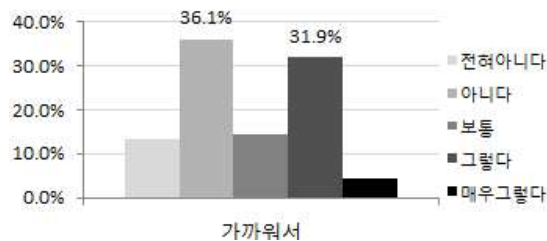
#### 4) 이동요인

이동 거리를 엿볼 수 있는 이동시간의 경우, 종로 지역에는 주거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0에서 20분 사이는 매우 적게 나타나지만 중력모델과 같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찾아오는 인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시간 이상의 이동시간을 감수하고 다니는 그룹도 35.1%나 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종로 지역은 노인들에게 높은 중심지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그림 3-37] 이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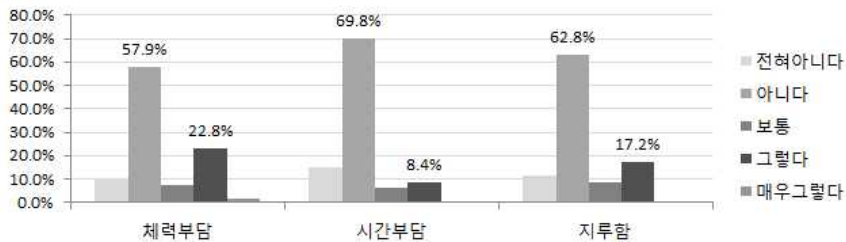
‘다니기에 가까워서’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양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였는데, ‘더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별로 힘들지 않기 때문에 다니기에 가깝다고 응답한 것일 수도 있다. 가깝다는 것은 실제 거리보다는 상대적인 인식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림 3-38] 거리 인식

9) 황성공원에서는 전체의 98.1%가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은 전체의 50.5%가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서울시 11개 공원에서는 87.1%가 40분 이내의 거리에서 찾아오고 있다(김문일, 2012; 박종미, 1998; 장수용, 2005).

이동에 관해서는 한 시간 정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종로지역에서 노인들은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동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동하는 시간도 별로 지루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동에 대한 세 가지 부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체력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는 편이었고, 가장 부담을 덜 느끼는 항목은 시간적인 부담이었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통행비용이 저렴한 교통수단을 선호한다는 결과<sup>10)</sup>와도 일치하며, 노인들이 시간에 대해 낮은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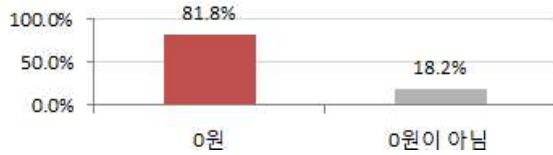


[그림 3-39] 이동에 대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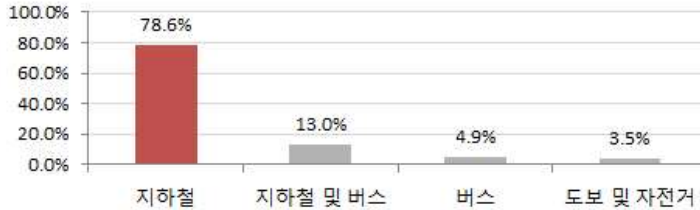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건강한 노인들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걷거나 절뚝거리며 걸음을 걷는 노인들도 비슷하게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 크게 작용하는 것은 ‘시간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라는 항목으로 시간이 많으니 체력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고,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이동시간은 그다지 지루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대부분 노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밀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경로석에 착석한 채로 이동하는 노인들의 경우 이동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적게 나타난다.

이들의 많은 시간과 더불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요소는 역시 교통수단과 교통비용이다. 지하철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곳에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10) 조남건,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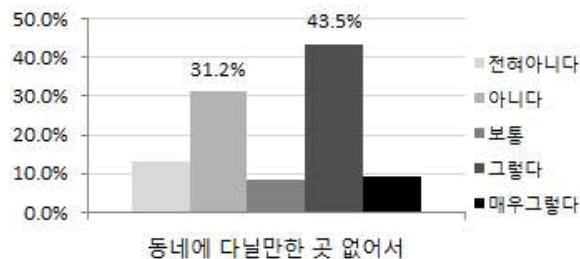
[그림 3-40] 교통비용



[그림 3-41] 이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 5) 근린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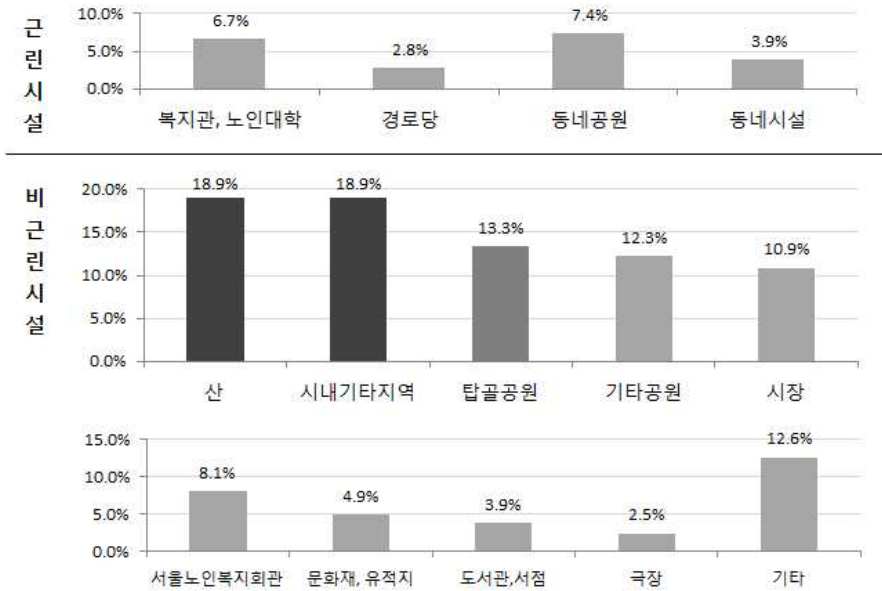
근린시설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중심지에 모일 것이라고 하는 가설에 대해서는 ‘동네에는 다닐 만한 다른 곳이 없어서’라는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질문하고, 자주 다니는 다른 곳, 거주기간을 질문하였다. ‘동네에 다닐만한 다른 곳이 없어서’에 대한 응답도 양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였는데, 동네에 정말 다닐만한 여가 장소가 없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동네에도 좋은 곳이 많지만 ‘사람이 없어서’ 싫고, 노인정이나 복지관 등은 ‘실내여서’ 답답하다거나 ‘심부름을 해야 해서’, ‘담배나 화투, 음주가 싫어서’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림 3-42] 근린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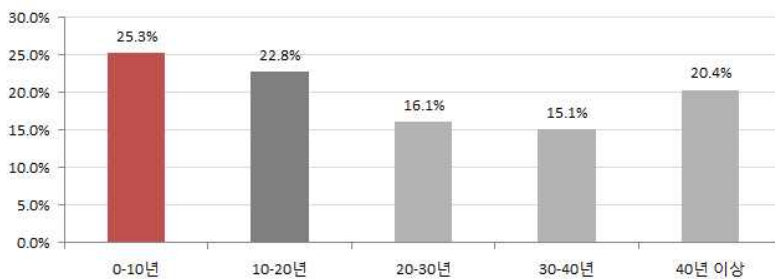
실제로 종묘공원을 제외하고 자주 다니는 곳을 질문하여 종합한 결과, 근린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원거리의 야외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린시설인 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동네 공원, 동네시설 등

을 다니는 경우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산이나 서울 시내의 다른 변화가를 다니는 경우가 18.9%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탑골공원이나 남산, 동묘공원 등 다른 공원을 다니는 경우나 시장 등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았다. 종묘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활기찬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43] 자주 다니는 곳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정도를 대신하여 질문한 현 거주지 거주년도는 10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3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도 전체의 35.1%를 차지하였다. 처음 가정과 달리 이들 세대는 대부분 일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동네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친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너무 가까워서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림 3-44] 거주기간

## 제 4 장 방문빈도와 체류시간 결정요인

### 제 1 절 방문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변수 및 분석모형 설정

##### 1) 교차분석

본 장에서는 먼저 각 요인별 방문빈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비교변수를 방문빈도로 설정하고 카이제곱( $\chi^2$ ) 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차표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은 검정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독립성과 관련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변수들 간의 빈도를 교차분류하는 교차표를 작성한 뒤, 기대빈도와 관측빈도간의 카이제곱( $\chi^2$ )의 유의확률을 구해 빈도 간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한 변수에 따라 다른 변수의 분포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기대빈도 5보다 작은 셀의 비율이 20% 미만이어야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교차분석에서는 비교변수를 방문빈도로 설정하고, 기초통계에서 대다수가 지하철을 택한 교통수단, 교차분석이 불가능한 자주 다니는 다른 곳, 현재 거주지 두 항목을 제외하고 전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은 각 분석단위별 기대빈도가 5 이상 나오도록 재조정하였다.

##### 2) 요인분석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에 대한 인식과 규모에 대한 인식 변수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점수를 도출하여 순서형 로짓 모형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포함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데이터를 변형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많은 변수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변수들끼리 묶어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시키는 분석방

법이다(이희연 · 노승철, 2012). 개개의 변량들은 각 변수들의 평균으로부터 분산되어 있으며, 각 변수들 간에는 분산의 정도가 유사한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각 변수의 분산을 합친 총 분산에는 각 변수들 간의 공분산이 포함되게 된다. 요인분석이란 이러한 변수들 간의 공분산을 측정하는 것으로 각 변수의 변량을 축으로 나타낸 다음 총 분산의 양을 가능한 한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요인분석은 변수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관관계가 없는 최소의 요인들을 찾아 새로운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 3) 최종 분석 모형

최종적으로 각각의 변수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한 변수의 변화가 방문빈도에 얼마나 차이를 가져오는지 검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모형을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순서형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특히 설문조사에 많이 사용되는 리커트 형(Likert-type scale)<sup>11)</sup> 응답을 회귀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기존의 모형들은 순서화된 응답을 다룰 때 단순히 평균을 구하거나 응답 번호를 그대로 응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이를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하게 된다(이성우 외, 2005).

순서형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주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위치요소(locationa component)는 회귀계수들과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부분( $\beta_1x_1 + \beta_2x_2 + \dots + \beta_kx_k$ )를 말한다. 이 요소에서는 한 개체가 어느 한 범주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기 위한 독립변수를 사용한다. 두 번째로 척도요소(scale component)는 독립변수들의 변동이 서로 다른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보다 변동이 크다면 척도요소를 선택하여 모형을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1)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과 같이 설문 응답자가 사회현상에 가지는 호감도 또는 반응을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척도

연결함수는 모형을 적절히 추정하기 위하여 누적확률을 변환시키는 것이다(김순귀, 2003).

순서형 종속변수에 사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비례승산모형(propotional odds model)로, 이 모형은  $y \leq k$ 와  $y > k$ 의 확률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c_k(x) &= \ln \left[ \frac{P(y \leq k|x)}{P(y > k|x)} \right] \\ &= \ln \left[ \frac{\pi_0(x) + \pi_1(x) + \dots + \pi_k(x)}{\pi_{k+1}(x) + \pi_{k+2}(x) + \dots + \pi_K(x)} \right] \\ &= a_k + x' \beta, \quad k = 0, 1, \dots, K-1 \end{aligned}$$

여기에서  $(p+1) \times 1$ 의 공변량 벡터  $x$ 가 주어졌을 때, 결과변수가  $k$ 일 확률을  $P(y = k | x) = \pi_k(x)$ ,  $a_k$ 는  $k$ 번째 로짓에 대한 절편항,  $\beta$ 는 독립변수  $x$ 의 회귀계수를,  $(K+1)$ 은 종속변수 수준의 수를 각각 나타낸다.  $K=1$ 인 경우 위의 식에 주어진 모형은  $y=0$  대  $y=1$ 의 확률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단순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로는 종로에 방문하는 빈도를 5가지 항목으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개인요인의 나이, 용돈, 학력, 은퇴전 직업, 동거유형, 근린요인에서 ‘동네’, 규모요인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규모선호, 이동요인에서는 이동시간, 교통비용, 이동인식의 요인점수인 이동부담을 투입하였다.

[표 4-1] 방문빈도 결정요인 분석 과정

	교차분석	요인분석	순서형 로짓분석
	각각 변수가 방문빈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규모요인과 이동요인 변수를 압축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 검증
종속변수	방문빈도		
공원이용특성	체류시간		
개인요인	학력	————→	학력
	은퇴 전 직업	————→	은퇴 전 직업
	용돈	————→	용돈
	동거유형	————→	동거유형
규모요인	이용정도	요인1	규모선택
	다양한 사람		
	아는 사람		
	재미		
	유일성		
	주변 이용	요인2	이동인식
이동요인	가게 이용		
	이동시간		이동시간
	교통비용		이동인식
	시간부담		
근린요인	체력부담		
	지루함		
	가까워서	————→	동네
	동네		
	거주기간	————→	거주기간



## 2. 방문빈도 결정요인 분석

### 1) 변수별 방문빈도 차이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보면, 공원이용특성인 체류시간은 집단 간 차이에 있어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개인요인 가운데에서는 학력이 유의미한 변수로 분류되었고, 규모요인은 ‘다양한 사람’과 ‘주변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동요인은 전 변수가 방문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 근린요인 가운데에서는 ‘동네’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인들이 공원을 찾는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는 규모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4-2] 교차분석 결과요약 1

요인	독립변수	변수 코딩	Pearson $\chi^2$	기대빈도 5 이하
비교 변수	방문빈도	1=한 달에 한 번 이하 2=한 달에 3-4번 3=일주일에 2-3번 4=거의 매일		
공원 이용특성	체류시간	1=1.5시간미만 2=1.5~3시간 3=3~4.5시간 4=4.5시간이상	62.530***	-
개인요인	나이	1=60대, 2=70대, 3=80대 이상	5.323	-
	학력	1=고졸 미만, 2=고졸 이상	7.348*	-
	은퇴 전 직업	1=농어업, 공장, 건설현장, 기타 2=장사, 사업, 서비스업 3=사무실 근무, 전문, 기술, 관리	2.493	-
	용돈	1=20만원 미만, 2=20-39만원 3=40만원 이상	7.532	-
	동거유형	1=독거, 2=배우자 있음, 3=배우자 없음	4.613	1(8.3%)
규모요인	이용정도 (활동개수)	1=1-3개, 2=4-5개, 3=6-8개	32.668***	-
	다양한 사람	1=그렇지 않다(1,2,3) 2=그렇다(4,5)	2.227	-
	아는 사람	1=그렇지 않다(1,2) 2=보통(3), 3=그렇다(4,5)	39.626***	-
	재미		30.259***	-
	유일성		10.962*	-
	주변이용		6.072	-
	가게이용		15.146**	-

[표 4-3] 교차분석 결과요약 2

요인	독립변수	변수 코딩	Pearson $\chi^2$	기대빈도 5 이하
이동요인	이동시간	1=30분 미만, 2=30~59분, 3=60분 이상	3.246	-
	교통비용	0=0원, 1=비용이 듦	1.010	-
	시간부담	1=부담 없음(1,2) 2=부담 있음(3,4,5)	1.746	-
	체력부담		1.620	-
	지루함		2.968	-
근린요인	거주기간	1=10년 미만, 2=10-20년 3=20년 이상	4.199	-
	동네	0=없음(4,5), 1=있음(1,2,3)	<b>13.345***</b>	-
	가까워서	1=그렇지 않다(1,2) 2=보통(3), 3=그렇다(4,5)	4.363	-

\* P<0.10, \*\* P<0.05, \*\*\* P<0.01

## 2) 규모인식과 이동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하였다. 이중 회전된 성분에서 요인간에 성분이 중복으로 나타나거나, 공통성이 적게 나타나는 가계이용과 주변이용 변수를 빼고 나머지 8개 변수들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규모인식과 이동인식에 관한 기초통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규모에 관한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설문항목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가계이용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균이 3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에 관한 인식도 점수가 높을수록 설문항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평균이 모두 3점 아래로 나타나 이동에 관한 세 가지 부문에서 모두 부담을 느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노인들은 이동에 대한 부담 중에서는 시간적 부담을 가장 덜 느끼고, 체력적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4-4] 규모와 이동에 대한 인식

요인	설문항목	명명	평균	표준편차
규모 인식	주로 하는 활동 개수	이용정도	3.97	1.665
	다양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여서	다양한 사람	4.31	0.897
	이곳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는 사람	3.23	1.284
	이곳에 오면 재미있기 때문에	재미	3.45	0.983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유일성	3.14	0.961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놀 수 있어서	주변이용	3.04	1.036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많아서	가게이용	2.89	1.101
이동 인식	체력적으로 힘이 든다	체력부담	2.61	1.233
	시간적 부담을 느낀다	시간부담	2.12	0.841
	이동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지루함	2.41	1.049

상관분석 결과, 전체 변수들 중 28.5%가 0.3이상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KMO(Kaiser-Meyer-Olkin) 통계량<sup>12)</sup>은 0.738, 바트렛의 구형성 검정(Batlett's test of sphericity)값<sup>13)</sup>의 유의확률은 0.00, 각 변수들의 KMO 값을 보여주는 역이미지 상관계수의 값도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나 본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5] 상관분석 결과와 역이미지 상관계수

	총계	다양한 사람	아는 사람	재미있어서	여기만	체력부담	시간부담	지루함
이용정도	1.000	0.343	0.421	0.292	0.293	-0.086	-0.070	0.019
다양한 사람		1.000	0.334	0.383	0.273	-0.068	0.006	0.055
아는 사람			1.000	0.426	0.322	-0.118	-0.081	-0.030
재미있어서				1.000	0.477	-0.141	-0.097	-0.065
여기만					1.000	-0.124	-0.065	-0.050
체력부담						1.000	0.297	0.293
시간부담							1.000	0.414
지루함								1.000
역이미지 상관계수	0.767	0.800	0.781	0.737	0.770	0.742	0.627	0.606

12) KMO 통계량에 따라 1~0.9 사이는 가장 좋은 데이터, 0.8~0.89는 우수한 경우, 0.7~0.79면 보통, 0.6~0.69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0.6미만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

13) 바트렛의 구형성 검정에서는  $P < 0.05$ 인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해석

요인분석 결과, 의도했던 대로 이동에 관한 인식과 규모에 관한 인식이 분리되었으며, 전체 문항이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communality)값은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6] 공통성의 추출

	초기	추출
이용정도	1.000	0.446
다양한 사람	1.000	0.462
아는 사람	1.000	0.525
재미있어서	1.000	0.567
여기만	1.000	0.454
체력부담	1.000	0.457
시간부담	1.000	0.602
지루함	1.000	0.623

분석 결과, eigen value가 1 이상 되는 요인은 두 개가 도출되었으며, 두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 분산은 51.693%였다<sup>14)</sup>. 요인은 처음 투입할 때 설계했던 대로 규모선호, 이동부담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별로 표준화점수인 요인점수(factor score)를 계산하였다. 요인점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text{개인별 요인 점수} = \sum_{i=1}^k (\text{변수 } i \text{의 요인계수} \times \text{변수 } i \text{의 원자료 표준화 값})$$

[표 4-7]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2.510	31.380	31.380	2.510	31.380	31.380	2.439	30.484	30.484
2	1.625	20.313	51.693	1.625	20.313	51.693	1.697	21.209	51.693
3	0.808	10.105	61.798						
4	0.737	9.213	71.011						
5	0.681	8.509	79.520						
6	0.603	7.541	87.061						
7	0.574	7.173	94.234						
8	0.461	5.766	100.000						

14) 설명된 총 분산은 크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론적으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압축을 위해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어서 요인분석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표 4-8] 요인분석 결과 및 명명

	성분		명명
	1	2	
재미있어서	0.742	-0.128	규모선호
아는 사람	0.721	-0.073	
다양한 사람	0.674	0.088	
총계	0.668	-0.005	
여기만	0.666	-0.104	
지루함	0.055	0.787	이동부담
시간부담	-0.035	0.775	
체력부담	-0.146	0.660	

[표 4-9] 성분변환행렬

성분	1	2
1	0.959	-0.285
2	0.285	0.959

### 3) 순서형 로짓분석

본 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오른쪽으로 매우 쏠려있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연결함수로 보완 log-log 함수와 Cauchit 함수<sup>15)</sup>를 검토한 뒤, 예측비율에 근거하여 Cauchit 함수를 연결함수로 사용하는 로짓모형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다.

다음 표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종속변수인 방문빈도는 머무는 시간, 동네, 규모선호 요인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동시간은 교통비용과 함께 거주기간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네’는 거주기간, 규모선호와, 나이는 교통비용, 고졸여부, 이동부담과, 은퇴전 직업은 고졸여부와 용돈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상관관계는 모두 0.4를 넘지 않는다.

15) 보완 log-log 함수는  $f(x) = \log(-\log(1-\gamma))$  형태로, 높은 범주의 개체수가 더 많은 경우 사용하는 함수이고, Cauchit함수는  $f(x) = \tan(\pi(x-0.5))$  형태로 극단 값이 많은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이다.

[표 4-10] 변수 간 상관관계

		방문 빈도	이동 시간	동네	거주 기간	나이	고졸 여부	용돈	은퇴전 직업	동거 분류	규모 선호	이동 부담
방문빈도	상관계수	1	-.050	-.167	.105	.099	-.079	-.046	-.062	.052	.371	-.032
	유의확률		.405	.005	.076	.095	.187	.438	.303	.383	.000	.593
이동시간	상관계수		1	-.105	-.205	.047	-.001	.000	.037	.021	.083	.100
	유의확률			.076	.001	.432	.991	.997	.541	.727	.160	.092
동네	상관계수			1	.122	-.063	.015	.028	.035	-.109	-.163	-.043
	유의확률				.041	.290	.808	.637	.560	.069	.006	.471
거주기간	상관계수				1	.046	-.046	.069	.099	-.163	-.003	-.062
	유의확률					.438	.443	.247	.098	.006	.962	.300
나이	상관계수					1	-.147	-.059	.061	.048	.024	.182
	유의확률						.013	.322	.308	.426	.683	.002
고졸여부	상관계수						1	.010	.280	-.060	-.048	-.072
	유의확률							.873	.000	.320	.420	.223
용돈	상관계수							1	.164	.027	-.028	-.004
	유의확률								.006	.655	.642	.946
은퇴전직업	상관계수								1	-.043	-.102	.004
	유의확률									.479	.087	.950
동거분류	상관계수									1	-.043	.080
	유의확률										.472	.180
규모선호	상관계수										1	.000
	유의확률											1.000
이동부담	상관계수											1
	유의확률											

※ 음영은 양쪽 유의확률 5% 이하인 피어슨상관계수

순서형 로짓분석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log likelihood 값을 보면 절편만 투입된 모델은 816.327인 반면에, 독립변수를 포함한 최종모델은 761.154로 유의확률이 0.000 이하로 나타나, 추정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에 대한 피어슨 카이제곱 통계량과 편차에 근거한 카이제곱 통계량에 의한 유의확률도 각각 0.599, 1.000으로 나타났다. 유사결정계수는 Cox와 Snell 방식이 0.181, Nagelkerke 방식이 0.191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계산된 유사 R<sup>2</sup>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모형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모형에 의해 생성된 예측범주와 실제 범주를 교차 분류하여 분류표를 만드는 것이다. 초기모형에 대한 분류표는 아래와 같으며, 한 달에 한 번의 경우 17.5%를 정확하게 예측하였지만, 일주일에 2-3번은 54.3%, 거의 매일의 경우 47.8%를 예측해 높은 방문빈도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예측범주와 실제범주간의 교차표

		예측된 응답범주				전체
		한달에 한번	한달에 3-4번	일주일에 2-3번	거의 매일	
방 문 빈 도	일년에 1-3번	빈도 3	빈도 4	빈도 7	빈도 2	16
	방문빈도 중 %	18.8%	25.0%	43.8%	12.5%	100.0%
	한달에 한번	빈도 7	빈도 8	빈도 17	빈도 8	40
	방문빈도 중 %	17.5%	20.0%	42.5%	20.0%	100.0%
	한달에 3-4번	빈도 4	빈도 16	빈도 22	빈도 5	48
	방문빈도 중 %	8.3%	35.4%	45.8%	10.4%	100.0%
	일주일에 2-3번	빈도 1	빈도 8	빈도 44	빈도 28	81
	방문빈도 중 %	1.2%	9.9%	54.3%	34.6%	100.0%
	거의매일	빈도 2	빈도 5	빈도 42	빈도 43	92
	방문빈도 중 %	2.2%	5.4%	44.6%	47.8%	100.0%
전체	빈도	18	41	132	86	277
	방문빈도 중 %	6.1%	15.2%	47.3%	31.4%	100.0%

#### 4) 결정요인

모형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모수추정결과를 보면 추정계수의 크기를 통해 요인 간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전체 변수 중 유의한 변수는 규모요인, 동네, 거주기간, 동거유형 뿐이었다. 이는 종로를 찾는 집단 간에는 이동인식, 이동시간, 교통비용, 개인요인 등에 따라 방문빈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4-12] 순서형 로짓분석 변수 구성 및 분석 결과

변인			내용	$\beta$ 추정값	Wald	exp( $\beta$ )
종속 변수	방문빈도		<b>1=일 년에 1-3번</b>	<b>-3.902**</b>	<b>5.482</b>	<b>0.020</b>
			2=한 달에 1번	-0.200	0.027	0.819
			3=한 달에 3~4번	0.895	0.540	2.448
			<b>4=일주일에 2~3번</b>	<b>2.260*</b>	<b>3.345</b>	<b>9.581</b>
			5=거의 매일	0	.	1.000
독립 변수	규모요인	규모선택	<b>factor 1</b>	<b>0.565***</b>	<b>23.087</b>	<b>1.759</b>
	이동요인	이동부담	factor 2	-0.120	1.397	0.887
		이동시간	연속형 변수	-0.005	1.359	0.995
	근린요인	동네없음 (더미)	<b>0=동네에 가는 곳 없음</b>	<b>0.520**</b>	<b>6.120</b>	<b>1.682</b>
			1=동네에 가는 곳 있음	0	.	1.000
		거주기간	<b>연속형 변수</b>	<b>0.015**</b>	<b>5.619</b>	<b>1.015</b>
	개인요인	나이	연속형 변수	0.023	2.152	1.023
		용돈	연속형 변수	-0.003	1.301	0.997
		학력 (더미)	0=고졸 미만 1=고졸 이상	-0.069 0	0.108 .	0.933 1.000
		은퇴전 직업	1=농어업, 공장, 건설	-0.050	0.040	0.951
			2=장사, 사업, 서비스	0.327	1.698	1.387
			3=사무실, 전문, 관리, 기술	0	.	1.000
		동거유형 (더미)	<b>1=배우자 있음</b>	<b>-0.831***</b>	<b>9.915</b>	<b>0.436</b>



한편 변수별 부호를 해석해보면, 규모선호, 이동부담, 이동시간, 동네, 나이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돈, 은퇴 전 직업, 학력은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종속변수와와의 관계

	정의 관계(+)	부의 관계(-)
변수	규모선호***, 이동부담, 이동시간, 동네**, 거주기간*, 나이	용돈, 은퇴 전 직업, 학력, 동거유형***

교차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학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동거유형과 거주기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동거유형에서는 혼자 거주하는 경우와 배우자 없이 자녀 또는 자녀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는 차이가 없지만, 혼자 거주하는 경우와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배우자의 유무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sup>16)</sup>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거주기간의 경우, 거주기간이 길수록 동네의 관계가 많고 근린시설을 이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었는데 오히려 거주기간이 길수록 종묘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기간과 근린시설 이용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동요인은 이동부담과 이동시간, 교통비용 어떤 변수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동에 관한 요건 중에는 종묘공원을 자주 찾는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묘공원을 자주 찾는 노인과 자주 찾지 않는 노인 간에는 이동요인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개인요인도 동거유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큰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규모선호와 ‘동네’는 교차분석에 이어 순서형 로짓분석 결과에서도 여전히 유의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종묘를 자주 찾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동거유형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배경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동에 부담이 없고 이동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다. 다만 모두 종묘공원에서 형성되는 어떤 규모와 다양성을 원하고 있고, 그러한 요소들을 동네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종묘공원으로 오는 것이다.

16)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모색하는 반면, 배우자 상실시 개별 여가시간이 증가함과 동시에 심리적 외로움, 역할 상실감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모색한다(이선미, 1991)

## 제 2 절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변수 및 분석모형 설정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요인, 이동요인, 규모요인의 변수로 선정하고, 각각의 변수에 따라 체류시간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t 검정방법은 두 모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사용한다(이희연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두 모집단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독립표본 t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산분석(ANOVA)은 비교가 되는 집단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F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평균이 다른 집단이 적어도 하나 있음을 밝히는 방법이다. 즉, 분산분석은 표본 집단을 범주화해주는 설명변수의 차이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이(그룹 간 분산)와 동일한 설명변수를 갖는 집단 내에서의 종속변수의 변이(그룹 내 분산)를 비교하여 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구분하는 명목변수를 하나만 지정하므로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사용된 각 변수의 분류와 분석 방법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4-14] 체류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

분류	변수	분류	분석방법
개인 요인	나이	1=60대, 2=70대, 3=80대 이상	분산분석
	학력	1=고졸 미만, 2=고졸 이상	t 검정
	은퇴 전 직업	1=농어업, 공장, 건설현장, 기타 2=장사, 사업, 서비스업 3=사무실 근무, 전문, 기술, 관리	분산분석
	용돈	1=20만원 미만, 2=20-40만원 3=40만원 이상	분산분석
	동거유형	1=독거, 2=배우자 있음, 3=배우자 없음	분산분석
규모 요인	산책·바람쐼기	0=하지 않음, 1=함	t 검정
	사람구경	0=하지 않음, 1=함	t 검정
	대화	0=하지 않음, 1=함	t 검정
	식사·간식·술	0=하지 않음, 1=함	t 검정
	바둑·장기	0=하지 않음, 1=함	t 검정
	책·신문	0=하지 않음, 1=함	t 검정
	영화,연설	0=하지 않음, 1=함	t 검정
	정치이야기	0=하지 않음, 1=함	t 검정
	다양한 사람	1=그렇지 않다(1,2,3) 2=그렇다(4,5)	t 검정
	아는 사람	1=그렇지 않다(1,2) 2=보통(3), 3=그렇다(4,5)	분산분석
	재미	1=그렇지 않다(1,2) 2=보통(3), 3=그렇다(4,5)	분산분석
	유일성	1=그렇지 않다(1,2) 2=보통(3), 3=그렇다(4,5)	분산분석
	주변이용	1=그렇지 않다(1,2) 2=보통(3), 3=그렇다(4,5)	분산분석
	가게이용	1=그렇지 않다(1,2) 2=보통(3), 3=그렇다(4,5)	분산분석
이동 요인	이동시간	1=30분 미만, 2=30~59분, 3=60분 이상	분산분석
	체력부담	0=부담없음, 1=부담있음	t 검정

## 2. 요인별 체류시간 차이

### 1) 개인요인

개인요인 중에서는 나이, 학력, 용돈이 변수의 차이에 따라 평균 체류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의 체류시간이 유의하게 짧았다.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결과에서도 70대가 다른 집단과 다른 체류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용돈의 경우 20~39만원을 쓰는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체류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20만원 이하인 경우가 체류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에 대해서도 Scheffe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하였는데, 용돈을 20만원 미만 쓰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체류시간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5] 개인요인이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류	변수	분류	평균 체류시간	F값/t값	유의확률
개인 요인	나이	1=60대	3.324	4.483**	0.012
		2=70대	3.080		
		3=80대 이상	3.846		
	학력	1=고졸 미만	3.597	2.716***	0.007
		2=고졸 이상	2.996		
	은퇴 전 직업	1=농어업, 공장, 건설현장, 기타	3.372	0.497	0.609
		2=장사, 사업, 서비스업	3.462		
		3=사무실 근무, 전문, 기술, 관리	3.203		
	용돈	1=20만원 미만	3.067	2.558*	0.079
		2=20-39만원	3.631		
		3=40만원 이상	3.225		
	동거유형	1=배우자 있음	3.293	0.262	0.770
		2=배우자 없음	3.377		
		3=독거	3.492		

\* P<0.1, \*\*P<0.05 \*\*\*P<0.01

## 2) 규모요인

규모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규모요인의 경우, 산책·바람 쐬기와 영화 관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이 체류시간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관람의 경우,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체류시간이 오히려 더 작게 나타나 영화 관람과 공원이용은 그다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체 활동 중에서 대화, 식사·간식·술을 선택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장 길었다.

[표 4-16] 규모요인이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류	변수	분류	평균 체류시간	F값/t값	유의확률
규모 요인	산책·바람쐬기	0=하지 않음	3.303	-0.144	0.886
		1=함	3.342		
	사람구경	0=하지 않음	2.788	<b>-2.568**</b>	<b>0.011</b>
		1=함	3.479		
	대화	0=하지 않음	2.368	<b>-7.702***</b>	<b>0.000</b>
		1=함	3.958		
	식사·간식·술	0=하지 않음	2.619	<b>-5.720***</b>	<b>0.000</b>
		1=함	3.838		
	바둑·장기	0=하지 않음	3.117	<b>-2.279**</b>	<b>0.023</b>
		1=함	3.623		
	책·신문	0=하지 않음	3.168	<b>-2.524**</b>	<b>0.012</b>
		1=함	3.797		
	영화	0=하지 않음	3.385	1.383	0.168
		1=함	2.879		
	정치이야기	0=하지 않음	3.099	<b>-2.543**</b>	<b>0.012</b>
		1=함	3.665		
	다양한 사람	1=그렇지 않다(1,2,3)	2.375	<b>24.694***</b>	<b>0.000</b>
		2=그렇다(4,5)	3.490		
	아는 사람	1=그렇지 않다(1,2)	2.325	<b>-3.570***</b>	<b>0.000</b>
		2=보통(3)	3.533		
		3=그렇다(4,5)	3.921		
	재미	1=그렇지 않다(1,2)	2.302	<b>47.498***</b>	<b>0.000</b>
		2=보통(3)	3.262		
		3=그렇다(4,5)	3.755		
	유일성	1=그렇지 않다(1,2)	2.834	<b>5.354***</b>	<b>0.005</b>
		2=보통(3)	3.301		
		3=그렇다(4,5)	3.758		
	주변이용	1=그렇지 않다(1,2)	3.468	0.484	0.617

자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 주변지역 이용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주변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체류시간을 길게 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게이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앞서 식사·간식·술과 연관시켜 보면, 주변에 이용할만한 가게가 많다고 해서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이 공원에 오래 머무르는 이유는 공원 주변의 다른 요소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공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3) 이동요인

이동요인은 이전 방문빈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체류시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이동요인이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류	변수	분류	평균 체류시간	F값/t값	유의확률
이동 요인	이동시간	1=30분 미만	3.221	0.150	0.861
		2=30~59분	3.386		
		3=60분 이상	3.319		
	체력부담	0=부담없음	3.262	-0.948	0.344
		1=부담있음	3.487		
	시간부담	0=부담없음	3.282	-1.082	0.280
		1=부담있음	3.614		
	지루함	0=부담없음	3.420	1.295	0.196
		1=부담있음	3.096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종묘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외부의 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현장 관찰로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노인들이 근린시설보다 도심의 종묘공원을 여가지역으로 더 선호하는 이유를 개인요인, 이동요인, 규모요인, 근린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먼저 현장관찰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공원 내에서 나름의 질서를 형성하며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몇 사람이 공원에 오지 않더라도 항상 일정 규모의 사람이 공원에 머무르게 되는 ‘규모의 효과’가 있는 한편,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공원으로 인한 사람과 활동의 ‘다양성’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원 주변의 이용을 살펴보면, 종묘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정부가 계획한 ‘실버벨트’보다도 과거에 이용하던 탑골공원 동북쪽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같은 업종이라도 여러 점포가 다양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 인구의 집중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점포들의 영업은 각각 서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초통계에 의하면, 종로에 오는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동에 대한 낮은 부담감과 규모요인에 대한 선호, 그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선호이다. 노인들은 종묘공원 이외에 다니는 장소로 근린장소들보다 산이나 서울시내의 다른 변화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으로는 하루에 만원 내외를 쓰는 노인들이 많았고, 학력수준은 초졸이 가장 많았다. 은퇴 전에는 사무실, 장사·사업, 공장·건설업 등에 종사하였다. 흔히 언급되는 것과 달리 동거형태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가까운 도심권역보다도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의 이용자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용자를 동별로 지도에 표시해 보았을 때에도 서울시내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은 거

리와 큰 관계가 없었다. 다만 원거리의 이용자는 대부분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종로를 자주 찾는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나이, 용돈, 학력 등 사회경제적인 변수보다도 동네에 다닐만한 곳이 없다고 느끼고, 종로의 규모요인을 더 선호하는 '취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배우자의 유무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종로를 자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체류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역시 이동요인은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규모요인은 대체로 체류시간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변이용'에 관련한 항목들은 크게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종묘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도심이라는 주변 환경보다 공원 자체의 특성에 의해 이곳에 오래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요인 중에서는 70대의 체류시간이 다른 연령대보다 짧고, 용돈이 20~40만원인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체류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일상 여가장소 이용행태와 선택요인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로에 노인들이 많이 오는 것은 현재 있는 동네 시설이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는 근린에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종묘공원을 찾는 노인들은 대부분 산이나 시내 기타 지역, 공원, 시장 등 노인들을 위해 계획된 실내의 복지시설보다도 야외의 장소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여가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복지시설의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장소들을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인들의 선호를 반영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들은 가깝더라도 사람이 적은 곳보다는 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호하였다.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써 생겨나는 규모와 다양성은 근린에서 쉽게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며, 이러한 규모요인은 방문빈도 뿐 아니라 체류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규모 중에서는 주변시설 이용보다도 공원 내부에서의 다양한 활동들과 종로 주변에서 식사·간식·주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종묘공원에 자주 다니는 노인들은 원거리를 이동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노인건강의 증진, 시간에 대한 낮은 기회비용,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개선과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무료교통은 이들의 이동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고 있다. 현재 노인층은 사회적, 경제적 역할 상에 변화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노인들에게 매일매일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이러한 낮은 기회비용은 밖으로 나갈 어느 정도 체력만 보장된다면 이들에게 긴 이동시간, 긴 이동거리를 감수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이러한 ‘이동하는’ 노인층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가족과도 살지 않고, 배우자와도 살지 않는 독거노인들이 다른 집단보다 종로를 더 자주 찾는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와 같이 배우자의 유무가 여가형태에 차이를 불러오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가 장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근린의 시설이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여럿이 모여서 다양하게 소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노인들의 여가만족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들은 종묘공원에서 동료 집단의 소속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고, 특별히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었음에도 다양한 여가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묘공원의 이용이 과거에만 있던 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공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외부공간에서 여럿이 모여 여가를 보내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여가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활력적인 요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연구대상 자체의 한계이다. 서울, 그리고 도심에 위치한 종묘공원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지하철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동에 대한 낮은 부담감은 지하철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노인들도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종묘공원의 이용행태는 과거 탑골공원부터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지속되어 온 형태로써 다른 공원이 갑자기 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종묘공원과 같이 노인들이 선호하는 곳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선호하는 공원의 설계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설계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구 대상인 종묘공원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연구기간 중 계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져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될 예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조건을 알기 보다는 그 안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실제로 다른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 설계상 한계이다. 본 연구는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사전조사, 현장관찰, 설문 등이 거의 같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 간 독립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노인의 경우 나이에 따라 용돈, 건강상태, 동거형태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 참 고 문 헌

## 1. 연구논문

- 권태연(2009),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2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163~196
- 김보현·안영선(2008),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15(1): 141~160
- 김소진(2009), “노인의 집단 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종묘공원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3):349~375
- 노시학·양은정(2011a), “서울시 이동가능 고령인구의 주요 통행패턴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인식”, 「국토지리학회지」, 45(4):545~557
- 노시학·조창현(2008), “수도권 고령인구와 청장년인구 간의 통행패턴 차이 분석”,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5, 261~268
- 노시학·조창현(2011b), “Change in Travel Behavior of the Elderly in Seoul Metropolitan Area”,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46(6), 2011.12, 781~796
- 박승진(2003), “탐골공원의 문화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30(6):1~16
- 박재간·모선희·원영희(1996),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 4:9~133
- 송혜자·남기민(2008), “노인공원의 이용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청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9:217~248
- 양재준(2007), “고령자의 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이용 실태와 평가에 관한 연구-용두산 공원을 사례로”, 「관광학연구」 31(2):83~104
- 이도희·김억(2008),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노인의 접근유발요소 분석, 「국토계획」 43(5):165~178
- 이소영·김혜정(2003), “노인의 공원이용특성연구-탐골공원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1):143~146
- 이인수·김인중(1999), “탐골공원 방문노인의 활동양상에 관한 연구-동절기 관찰

- 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195~219
- 이인정(1999),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 건강,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19(3):35~50
- 이인정(2007), 남녀노인의 우울,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6:159~179.
- 이훈·황희정(2008), “노인의 여가경험분석”, 관광학연구 32(6):37~338, 한국관광학회
- 임경춘·김선호(2012), “노인의 연령별 우울정도와 영향요인: 전기노인과 후기 노인의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21(1)
- 임춘식(1996), “대만의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 「노인복지정책연구」 1: 25~55
- 정진웅(2011), “정체성으로서의 몸짓: 종묘공원 노년 남성들의 ‘몸짓문화’의 의미”, 「한국노년학회지」 31(1):157~170
- 태경섭·임경준(2010), “상권경쟁을 고려한 신규점포의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서울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5(5):609~627
- 한경혜·윤성은(2009), “도시노인의 여가공간과 생활세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20(1):103~121
- 한성미·임승빈·엄봉훈(2009), “탐골·종묘공원 이용자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76~80

## 2. 학위논문

- 김문일(2012), 「노인들의 공원이용 실태와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경주시 황성공원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종미(1998), 「공원에서 소일하는 노인의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종천(2010), 「고령화 사회 노인 여가활동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기노 치히로(1999), 「탐골공원과 한국할아버지: 장소형성에 나타난 한국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강원(2004), 「담을 두른 공원-탐골공원을 통해 본 도시 공공공간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구석(2009), 「서울시 종로 노인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종로  
종묘공원·탑골공원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 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장수용(2005),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여가문화활성화에 관한 연구: 노인의  
공원이용실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천윤실(2003), 「노인의 참여를 통한 Clinic Park 계획안」,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단행본

김순귀·정동빈·박영술(2003),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pp173~198,  
(주) 데이터솔루션:서울

김익기·김동배·모선희·박경숙·원영희·이연숙·조성남(1999), “노인과 여가-즐거  
운 노후, 과연 어려운 일인가?”, 「한국 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pp319~361, 미래인력연구센터:서울

양학림, 2004, 「초보자도 알기 쉬운 상권분석」, 경향미디어:서울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pp177-190,  
박영사:서울

이희연(2011), “제9장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서비스산업의 입지특성”, 「경제지리학 제3판」,  
법문사:파주

이희연·노승철(2012),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pp660-721, 법문사:경기

장인협·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4. 보고서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정경희·염지혜·오영희·유혜영·이은진(2010),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12), “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노인실태조사 결과 및 노인복지발달 방향 토론회 자료집」
-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운환·최성재·김소영(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2-04
- 조남건(2011), 「고령화에 따른 통행특성 조사연구」, 국토연구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제2차 국제비교」

#### 5.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2004),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 통계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011. 12. 7 보도자료
-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연령별 평균시간

#### 6. 기사 및 웹페이지

- 노년시대신문, 2012.5.18., “광역자치단체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듣는다 ②서울 노년층 급증… 고령친화도시 여건 확충 박차”  
<http://www.n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78>
- 동아일보, 2009.8.25., “두 얼굴의 종묘공원 제자리 찾기”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8/h2009082517563121950.htm>
- 서울신문, 2009.2.6. 8면, “탑골공원 → 종묘공원 어르신 썩쓸한 대이동”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06008016>
- 서울연구원(2012),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찾는 지역은?”,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3호 <http://www.sdi.re.kr/node/45482>

서울행복도우미 블로그, 2010.04.15. 게시

<http://seoulwelfare.tistory.com/entry/%EC%84%9C%EC%9A%B8-%EC%A2%85%EB%A1%9C-%EB%85%B8%EC%9D%B8%EB%AC%B8%ED%99%94%EA%B1%B0%EB%A6%AC%EB%A1%9C-%EA%B1%B0%EB%93%AD%EB%82%98-1>

한국일보, 2007. 6. 5, “종묘공원, 난장관 아웃”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6/h2007060518195822040.htm>

## 7. 영문

Brody, E. M. (1977), “Environmental factors in dependency”, pp. 81-95 in A. N. Exton-Smith and J. G. Evans (Eds.), *Care of the Elderly: Meeting the Challenge of Dependency*. New York:Grune and Stratton.

Huff, D. L., (1962), “Determination of Intra-Urban Retail Trade Area”, *Real Estate Research 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uff, D. L., 1964, “Defining and estimating a trade area”, *Journal of Marketing*, 28:34-38.

Negarten, B., Moorn, J. and Low, L. (1995), “Age constraints and adult socialization”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710-717

Neugarten, B. L. (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 187-198.

Smith, C., and Freedman, A.(1972), *Voluntary Assosiation: Perspective on the Literatur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United Nations. (2010). *World population aging 2009*. Retrieved May 11, 2011,

# 부 록

## <부록1>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번호		지역	
----	--	----	--

이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수행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유선  
010-9159-6936



### 1. 귀하께서는 이 곳/지역에

1)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거의 매일 ( )
	일주일에 2-3번 ( )
	한 달에 3-4번 ( )
	한 달에 한 번 ( )
	일 년에 1-3번 ( )
2) 머무시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시간 ( )분
3)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십니까?	도보( ) 지하철( ) 버스( ) 환승( ) 승용차( ) 자전거( )
4) 오시는데 드는 비용(왕복)은 얼마입니까?	( )원
5) 오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시간 ( )분

### 2. 이곳에 나왔을 때 주로 하시는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하시는 활동에 √ 표시를 해주세요.

( ) 산책, 운동, 바람 쐬기	( ) 바둑·장기 등 게임·놀이
( ) 사람구경, 물건 구경	( ) 책 읽기, 신문 읽기, 음악 듣기
( ) 친구 또는 주변 사람과 대화	( ) 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 ) 식사, 간식 등 가게 이용	( ) 연설, 토론, 이야기 듣기

### 3. 귀하께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래 이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체력적으로 힘이 든다					
2) 시간적 부담을 느낀다					
3) 이동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4. 귀하께서 이 곳/지역을 여가 장소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다나기에 가까워서					
2)	이곳에 오면 재미있기 때문에					
3)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4)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여서					
5)	이곳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6)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놀 수 있어서					
7)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많아서					
8)	동네에는 갈 만한 다른 곳이 없어서					

5. 자주 다니시는 다른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 )

6. 응답해 주시는 분의 기초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 ( ) 여성 ( )			
2)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 세 혹은 ( ) 년생			
3) 은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 ( ) 사무실에 근무 ( ) 장사를 하거나 서비스업종에 종사 ( )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함 ( )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 )			
4) 한 달 용돈으로 얼마를 쓰십니까?	( ) 만 원 정도			
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6)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서울시 ( ) 구 ( ) 동 경기도 ( ) 시 ( ) 동			
7)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년 정도 혹은 ( ) 개월 정도			
8)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① 혼자 거주 ②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기타( )			

\* 설문이 끝났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기초통계 표

변수	항목	빈도(%)		변수	항목	빈도(%)	
방문 빈도	일 년에 1-3번	16	5.6%	주로 하는 활동	산책	223	78.2%
	한 달에 1번	41	14.4%		사람구경	225	78.9%
	한 달에 3-4번	50	17.5%		대화	173	60.7%
	일주일에 2-3번	82	28.8%		식사, 간식, 술	167	58.6%
	거의 매일	96	33.7%		바둑, 장기	122	42.8%
머무는 시간	1.5시간 미만	46	16.1%		책, 신문	75	26.3%
	1.5-3시간	65	22.8%		영화, 공연, 전시	29	10.2%
	3~4.5시간	85	29.8%		정치 연설	118	41.4%
	4.5~6시간	60	21.1%	다양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전혀 아니다	2	2.5%
	6~7.5시간	20	7.0%		아니다	17	23.9%
	7.5시간 이상	9	3.2%		보통	21	39.6%
연령	60-64세	15	5.3%		그렇다	97	25.3%
	65-69세	36	12.6%		매우 그렇다	148	8.8%
	70-74세	83	29.1%	아는 사람이 많아서	전혀 아니다	34	11.9%
	75-79세	71	24.9%		아니다	60	21.1%
	80-84세	47	16.5%		보통	45	15.8%
	85-89세	26	9.1%		그렇다	99	34.7%
	90세 이상	6	2.1%		매우 그렇다	47	16.5%
	무응답	1	0.4%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있어서	전혀 아니다	7	1.4%
학력	초졸 이하	102	35.8%		아니다	68	20.4%
	중졸	51	17.9%		보통	113	21.4%
	고졸	80	28.1%		그렇다	72	45.6%
	대졸	46	16.1%		매우그렇다	25	11.2%
	무응답	6	2.1%	재미 있어서	전혀 아니다	4	3.5%
과거 직업	농어업 및 기타	10	3.5%		아니다	58	34.4%
	공장, 건설업	68	23.9%		보통	61	23.5%
	장사, 사업	78	27.4%		그렇다	130	31.9%
	사무실	99	34.7%		매우 그렇다	32	6.7%
	전문, 기술, 관리	27	9.5%	돌아다니며 놀 수 있어서	전혀 아니다	10	8.1%
	무응답	3	1.1%		아니다	98	37.5%
동거 형태	혼자거주	60	21.1%		보통	67	16.8%
	배우자만	123	43.2%		그렇다	91	32.6%
	배우자, 자녀	46	16.1%		매우 그렇다	19	4.9%
	배우자, 자녀, 손자	24	8.4%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많아서	전혀 아니다	23	13.3%
	자녀, 자녀와 손자	28	9.8%		아니다	107	36.1%
	무응답	4	1.4%		보통	48	14.4%
용돈	0-19만원	89	31.2%		그렇다	93	31.9%
	20-39만원	121	42.5%		매우 그렇다	14	4.2%
	40-59만원	44	15.4%	이동시간	0-20분	20	7.0%
	60-79만원	7	2.5%		20-40분	97	34.0%

변수	항목	빈도(%)		변수	항목	빈도(%)	
교통수단	지하철	224	78.6%	동네에 갈만한 곳 없어서	전혀 아니다	22	7.7%
	지하철과 버스	37	13.0%		아니다	89	31.2%
	버스	14	4.9%		보통	24	8.4%
	도보 및 자전거	10	3.5%		그렇다	124	43.5%
교통비용	무료	233	81.8%		매우 그렇다	26	9.1%
	비용이 듦	52	18.2%	거주기간	0-10년	60	21.1%
체력부담	전혀 힘 안듦	29	10.2%		10-20년	123	43.2%
	힘들지 않음	165	57.9%		20-30년	46	16.1%
	보통	21	7.4%		30-40년	24	8.4%
	힘이 들음	65	22.8%		40-50년	28	9.8%
	매우 힘이 듦	5	1.8%		50-60년	4	1.4%
시간부담	전혀 부담 안 됨	43	15.1%	근린시설	복지관, 노인대학	19	6.7%
	부담되지 않음	199	69.8%		경로당	8	2.8%
	보통	18	6.3%		동네공원	21	7.4%
	부담이 됨	24	8.4%		동네시설	11	3.9%
	매우 부담 됨	1	0.4%	비근린 시설	산	54	18.9%
지루함	전혀 안 지루함	32	11.2%		시내기타지역	54	18.9%
	지루하지 않음	179	62.8%		탐골공원	38	13.3%
	보통	25	8.8%		기타공원	35	12.3%
	지루함	49	17.2%		시장	31	10.9%
	매우 지루함	0	0.0%		서울노인복지회관	23	8.1%
다니기에 가까워서	전혀 아니다	38	0.7%		문화재, 유적지	14	4.9%
	아니다	103	6.0%		도서관,서점	11	3.9%
	보통	41	7.4%		극장	7	2.5%
	그렇다	91	34.0%		기타	36	12.6%
	매우 그렇다	12	51.9%	총계		285	100.0%

## Abstract

# The Elderly's Use-behavior and Selection Factors on Daily Leisure Space: Focused on Jongmyo Park in Seoul

Jung, You Sun

Departments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Korea become an aging society rapidly, issue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and elderly leisure is increasingly important in urban planning area. In many facilities, this thesis focused on park. Park has high priority to the elderly as Elderly Welfare Center or silver hall does. Also, parks called as the aged park or silver park are increasing according to rising use of the elderly. An general principle about how to spatially arrange welfare and leisure service for the aged is to provide more neighborhood facilities because the aged people can't move easily. However, the phenomenon that old people travel long distance for gatherings in parks in Jong-ro area raises an issue that not only

accessibility but also preference of scale should be verified for future planning of elderly facilities.

The an object of study is Jong-myoo park which is famous place for the elderly in Seoul. An objective of study is to suggest spatial planning principals for the elderly's leisure by analyzing factors why the elderly chooses Jong-myoo. In the research, field observation, face to face interviews,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conducted. Also, reasons why the old age prefers Jong-myoo to its neighborhood was analyzed separately by individual factor, movement factor, scale factor, and neighborhood factor.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e the followings. First, old people chose Jong-myoo park because they didn't have good neighborhood leisure facilities. Also, they preferred vibrant outdoor places to indoor welfare facilities. That is, developing not only basic welfare facilities but also facilities that satisfy the elderly is necessary.

Second, the elderly favored Jong-myoo park because many old people were gathered there and they could meet diverse people in similar age. Size and diversity of gathered group affected both visit frequency and spending time.

Third, Many elderly people who comes Jong-myoo park didn't regard long distance travel as a burden or barrier. Old people's improved health condition, low opportunity cost to trip time, and easy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made their travel easy. Therefore, number of the elderly who travel long distance for their preferred leisure place will increase continuously.

Lastly, the elderly living alone came to the park more frequently than other elderly groups. It means that living with or without a spouse affects their leisure types. Thus place that allows the elderly to gather more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lives of old people without spouses. Therefore, the elderly's leisure satisfaction can be increased even in neighborhood facilities if they provide space that would increase size and diversity of groups meet.

Though aged population is increasing, leisure place that the elderly can stay for day time and feel free are very limited. Also gatherings of old people are seen as negative light rather than positive light. But the place like Jong-myoo park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elderly leisure. They feel comfortable and are relieved in same homogeneity. Even though there wasn't any special services or events offered by external organizations, the elderly created and maintained diverse leisure activities spontaneously. The elderly's use of Jong-myoo park isn't temporary phenomenon. It has been continued for long time. As aging population increase, the demand of these leisure place will increase steadily. Accordingly, the city should invigorate elderly leisure more actively and recognize those leisure places as vital to itself.

■ **Keywords** : *The Elderly, Daily Leisure Space, Jong-myoo Park, Economy of Scale, Diversity, Recognition about travel, Neighborhood Facilities*

■ **Student Number** : 2011-23936